metro
메트로 2014년 3월 3일 월요일

Sports p/22

박지성 공격포인트 기록

민주·새정치연합 통합신당 창당

김한길·안철수 전격선언 기초선거 무공천도 합의

2일 오전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 중앙위원장이 6·4 지방선거 전 신당을 창당한다고 전격 발표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무공천'을 공동으로 실천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관련기사 2면>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양측은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새정치를 위한 신당 창당으로 통합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정권 교체 실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대선 때의 거짓말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고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차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지방선거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통합 신당 창당 선언은 3일간의 극비 프로젝트로 신속하게 진행됐다.

김 대표는 지난달 28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결정한 뒤 이를 안 위원장에게 설명하며 통합을 먼저 제안했다.

이후 이들은 3·1절인 1일 오전과 밤 두 차례 만나 논의한 끝에 2일 오전 0시40분께 '제3지대 신당'을 통한 두 세력의 통합 추진에 전격 합의했다.

민주당은 2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를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새정치연합도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어 격론 끝에 신당 창당을 추인했다.

민주당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제3지대 신당 창당 시기와 관련해 "전국을 순회하며 시·도당 창당대회도 하고, 3월 하순에 전당대회를 할 것"이라며 "3월 말까지 법적으로 충분히 끝낼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조만간 5대5 비율로 창당준비단을 구성해 창당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 '폭탄 선언'으로 새누리·민주·새정치연합의 3자 대결로 전망되던 6·4 지방선거는 새누리당과 통합 신당의 양자 대결 구도로 재편하게 됐다.

특히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무공천' 원칙을 내세우면서 새누리당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일단 새누리당은 "자력 갱생이 어려운 급조 신생 정당과 야권 짝짓기라면 무엇이든 내던지는 제1야당과의 야합"이라며 "자존심도 내던지는 구태 정치 보습을 재연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중진인 이재오 의원은 "야당이 기초지방자치선거 무공천을 선언했다면 대선공약대로 여당도 무공천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여권 내에서도 지방선거 무공천 원칙이 활발하게 논의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새로운 정치를 주장하면서 세력을 끌어모았던 안철수 위원장이 독자 노선이 아닌 야권 연대를 선언하면서 새정치연합 내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지가 변수로 남게 됐다. '친노계'와 '비친노계'로 구분된 민주당 역시 당내 반발이 예견되는 만큼 향후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유그오기자 mjsm@metroseoul.co.kr

오랜만에 맑은 하늘 오랜만에 미세먼지 없이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인 2일 오후 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시계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신당 건축' 가시밭길 예고

덥석 잡은 손… 지방선거 고육책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 중앙운영위원장이 2일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예고하면서 앞으로 통합을 위한 '가시밭길'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된다.

양측의 이번 신당 창당 선언은 3자 구도로 지방선거에 임할 경우 야권의 분열로 필패가 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가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김한길 대표는 그동안 "양측의 경쟁이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안기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안철수 위원장 역시 신당 창당을 선언하며 독자 노선을 고수해왔지만 야권 분열의 책임론에 자유로울 수 없었다. 특히 국회 내 2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 정치의 벽도 실감했다. 이때 민주당이 무공천에 동참하겠다는 명분을 제시하며 통합의 손을 내밀자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들이 진정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을 넘어야 한다.

우선 3월 말로 예정된 신당창당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할 경우 당권을 놓고 권력 두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 양측은 '통합 정신'을 살리기 위해 '126석 대 2석'이라는 물리적 불균형과 상관없이 '5대5'로 창당준비단을 꾸린다. 하지만 향후 신당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지분 경쟁이 불가피하다.

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측의 후보 주고받기가 쉽게 해결되지 미지수다. 서울시장의 경우 민주당 소속 박원순 현 시장이 후보로 나설 것이 유력해 보이지만 경기도지사의 경우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최종 결심 여하에 따라 김진표·원혜영 의원 등 민주당 내 기존 주자와의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 부산에서는 안 위원장의 '러브콜'을 받아온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거취도 변수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는 지방선거 후보로 나설 경우 당선 가능성이 큰 만큼 당내 경선 과정에서 양측 후보군 간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지난 대선 단일화 과정을 거치며 등을 돌린 민주당 내 '친노' 진영과 안 위원장 측이 뿌리 깊은 앙금을 어떻게 해소할지 관건이다. 친노 진영의 수장인 문재인 의원은 이날 신당 창당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이들 세력 간 주도권 경쟁이 불 보듯 뻔하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안 위원장-당권', '문 의원-대권'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남산 백범광장 김구 동상 앞에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마치고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몽준 서울시장 출마선언

"당선되면 임기 채우겠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2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남산 백범광장의 김구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0만 서울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 서울이 힘차게 고동치도록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정 의원은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주어진 임기를 지키면서 서울 시민과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하겠다"며 당선 시 차기 대선 도전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밝혔다.

그는 "최근에 대통령도 밝혔듯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 시대로 나아가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가야 한다"며 "서울이 그 중심 역할을 할 때 국가 발전도 국민 행복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큰 그림을 가지고 단계별로 실천하겠다"며 "3시간 비행 거리에 살고 있는 15억 명이 찾아오고 싶은 서울, 장사가 잘되는 서울,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의원이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출마가 예상되는 김황식 전 총리와 이미 출마 선언을 밝힌 이혜훈 최고위원의 삼파전 구도로 펼쳐지게 됐다.

/조현정기자 [illegible]

김한길 오른쪽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 중앙위원장이 2일 국회 사랑채에서 6·4 지방선거 전 신당 창당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랑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밀양송전탑 진정 "인권 침해 아니다"

인권위 두달만에 기각

경찰의 과도한 통행 제한으로 인권이 침해됐다며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이 낸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가 아니다'며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인권위가 전병헌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전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밀양 주민들이 송전탑 공사와 관련해 인권위에 낸 진정 중 경찰의 과도한 통행 제한과 관련된 진정이 지난달 10일 열린 전원위에서 기각됐다.

밀양 주민 이모씨는 지난해 9~11월 "경찰이 송전탑 공사 현장 3곳의 진입로를 과도하게 통제하고 주민들에게 폭력을 써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한 조사를 벌여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전원위에 검토안을 상정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두 차례 재상정을 거치는 진통 끝에 두 달여 만인 지난달 10일 심의를 마무리했다.

/윤다혜기자 [illegible]

위안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기

정부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고위급 회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적극 제기한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달 3~28일 열리는 올해 유엔 인권이사회의 고위급 회기는 6일까지로, 신동익 다자외교조정관이 5일(현지시간) 정부 대표 연설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우리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애초 정부 대표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직접 참석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악화된 일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계획이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정부 대표의 급을 어느 정도로 높일지를 놓고 고민했으나 예년대로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illegible]기자

인질극 남성 연행 지난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인근 치과병원에서 3시간가량 인질극을 벌이던 50대 남성이 2일 새벽 사건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돼 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LPG協 대학생 250명에 장학금

대한LPG협회는 총 10억원을 기부해 택시업계 자녀 대학생 250명에게 연간 최대 4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이는 LPG 업계가 출연한 LPG 희망충전기금 재원으로 택시업계에 1년 이상 종사한 부모를 둔 대학생 자녀 중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전국의 우수 대학생 250여 명에게 최대 1년간 연간 400만원씩 지급된다.

한국장학재단 곽병선 이사장은 "이번 기금은 택시업계의 복지 향상을 위해 LPG 업계가 자발적으로 조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학사업은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기금 10억원을 기탁해 이뤄졌으며 올해 상반기 장학생은 지난달 말에 발표됐다.

의사협 집단 휴진 대란 예고

찬성 76%…정부 강력대응

의료계가 오는 10일 총파업을 예고하자 지난 2000년 의약분업으로 발생했던 의료 대란이 재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일 오후 지난달 진행한 전 회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6만9923명 가운데 4만8861명(69.88%)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투표 결과 찬성 76.69%, 반대 23.28%로 예정대로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현재 총파업 동력을 끌어모으고 있다.

만약 의사들이 집단 휴진을 감행하며 총파업을 시작하면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일어난 파업에 이어 두 번째 의사 파업이 된다.

하지만 이번 총파업이 2000년과 같은 의료 대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등 내부적인 이해관계가 달라 투표에 참여한 의사들 모두가 파업에 참여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또 의협 구성의 핵심이 되는 16개 시·도 의사회 역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고 충남·부산 등 일부 의사회만이 노환규 의협 회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라 이 역시 총파업 강행의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중대형급 병원 협의체인 대한병원협회는 의협의 총파업 중요 쟁점 중 하나인 투자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만약 병협이 이를 문제 삼아 파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중대형급 병원 소속 의사 역시 선뜻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의 입장도 강경하다. 보건복지부는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집단 휴진은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집단 휴진 시 의료발전협의체 협의 결과를 무효화시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것.

한편 여야는 2일 의협의 집단 휴진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라며 파업 자제를 당부했다.

/유세환기자 ksh@metroseoul.co.kr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연인'의 뒤라스 사망

삼십년전 프랑스 최고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가로 꼽혔던 작가 마르그리트 뒤라스가 1996년 3월 3일 81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자신이 태어났던 베트남을 배경으로 14세 프랑스 소녀와 중국인 부호 아들의 육체적 애정을 다룬 소설 '연인'으로 프랑스 최고 권위의 공쿠르상을 수상했다.

경남정보대 입학식 열어 경남정보대학교(총장 추만석)는 지난달 27일 오후 교내 민석스포츠센터에서 신입생과 교직원 등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학년도 입학식'을 가졌다.

해기사 양성과정 입교식

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은 3일 오후 2시 대강당에서 청년 실업 해소 및 해양산업 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오션폴리텍 해기사 양성과정 입교식을 개최한다.

이날 입교식에는 해양수산부, 현진해운, 제일선박, 동원산업, 신라교역 등 국내 주요 선사와 관련 협회·유관 단체가 참석할 예정이며 입교선서, 환영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한국·캄보디아의 우호 증진과 해양수산 협력 확대를 위해 캄보디아 교육생 2명이 본 과정에 입교해 한국의 우수한 해기사 교육 노하우를 전수받을 예정이다.

세계언어교실 참가자 모집

부산국제교류재단은 오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제1기 문화와 함께하는 세계언어교실'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모든 수업은 외국인 주민이 직접 강사로 나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자기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게 된다.

모든 반은 입문반 수준으로 진행되며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내용과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생생하게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6일까지이며 참가 신청은 만 19세 이상 부산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국제교류재단 홈페이지(www.bfic.or.kr) 참조. 문의 051)668-7914

웃음건강치료사 자격연수

세계웃음건강박수협회는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협회 강의실에서 '제8기 건강박수치료사&웃음건강치료사 자격연수'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수를 통해 공인 1급의 건강박수치료사 자격과 웃음건강치료사 자격 2가지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자격 취득 시 부산·경남의 복지관, 병원, 노인대학, 각 기업체 등 2000여 곳에서 웃음건강치료사·건강박수치료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강사로는 세계웃음건강박수협회의 총재이자 웃음건강박수 창시자인 조영춘 박사가 직접 나선다. 문의 051)441-5511

만세운동길 역사테마거리 조성

시, 16억 들여 구포역~구포시장 구간 본격 추진

부산시는 3·1 만세운동의 시발 지역인 북구 구포동 구포역~구포시장 일원의 역사성을 살리고 구포의 옛 역사와 문화·예술 자원을 복원할 '만세운동길 역사테마거리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곳 만세운동길 역사테마거리 조성 사업비 16억원은 전액 시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순수 민간 주도 일제 저항운동이 일어났던 장일 구포장사의 역사적 현장인 구포만세길의 철길 방음벽에는 '민족의 함에 울려 퍼진 대한독립만세'란 주제로 벽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구포시장과 연결되는 지하 보도에는 희로애락을 간직한 구포장터란 주제로 구포의 섬쇠와 함께 한 감동나루터, 구포저축은행, 구포국수 등의 역사적 이야기를 담아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문화 교류 및 주민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만세운동길 주변에 '문화예술플랫폼' 건립에 착수해 올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또 만세운동길 인근 지역인 구포시장 주변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해 지난해 11월 문을 연 창조문화활력센터 '공감꿈 6.24'는 '락키점글', '동키호테' 등의 공연을 통해 힙합 문화와 연극을 선보이면서 덕천로터리 주변 젊은이들의 문화활동 아지트로 자리 잡는 등 젊은이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순수 민간 주도의 3·1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거리에 생생한 역사적 사실을 벽화와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부산 시민에게 잊혀져가는 역사를 되살리고, KTX 정차 횟수 감소로 날로 쇠퇴해 가고 있는 구포역 일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가슴에 새긴 나라 사랑 1일 오전 경남 ○○군 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5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한 주민이 가슴에 태극기를 두른 채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바닷물로 만든 수돗물 먹는다

기장군 해수담수화시설 시험가동…7월부터 시범급수

바닷물로 수돗물을 만드는 국내 첫 해수담수화 시설이 3월부터 시험 가동에 들어간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해수담수화 플랜트'(전체면적 4만5000㎡) 건설 사업을 완료하고 기장군 일원에 하루 4만5000t의 수돗물을 시범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연구개발비를 포함해 1954억원이 투입된 해수담수화 플랜트는 해수담수화 기술력 축적을 통한 해외 물산업 시장을 선점하고 낙동강 원수에 의존하는 부산시의 비상 급수 상수원 확보를 위해 건설됐다.

상수도사업본부는 3월까지 모든 설비 공사를 완료하고 한 달간 시험 운전을 거친 뒤 4월부터 기장 군민을 대상으로 물맛 시음회, 공청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기장군 지역에 대한 시범 급수에 나설 계획이다.

해수담수화 과정을 거쳐 생산된 여과수는 미네랄 등이 풍부해 현재 낙동강 원수를 활용한 화명정수장의 수돗물보다 뛰어난 맛을 자랑한다.

○○○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해수담수화 플랜트에서 생산한 수돗물 수질을 실시간 공개해 지역민의 신뢰를 쌓은 뒤 점차 생산 능력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산지역은 낙동강 표류수에 상수원의 ○○%를 의존하고 있다. 특히 대형 수질오염 사고로 낙동강 취수가 중단되면 대체 상수원이 절대 부족해 이번 해수담수화 플랜트 가동에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들뉴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점검

부산시는 도로명주소 조기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날 3일부터 14일까지 도로명판 훼손·망실 미부착 등 안내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구(군) 공무원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실시된다.

합동점검반은 ▲총 8438개 도로명의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안내시설 유지 관리 실태 ▲벽면형 도로명판 신축 건물·기존 건물번호판 등 부착 및 운영 실태 ▲교차로나 이면도로, 골목길 등 위치 찾기 혼동 지점 도로명판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도로명판 2만3620개, 건물번호판 33만2027개, 기타 772개 등 안내시설물 총 35만6419개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멸실, 훼손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5월 말까지 교차로나 이면도로, 골목길 등 위치 찾기 혼동 지점 중심으로 도로명판 등 2300여 개의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일반 주택의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구(군) 도로명주소 상황대응반으로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하면 교부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시민들이 내 집 앞에 설치된 건물번호판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점검을 통해 도로명주소로 위치 찾기가 어려운 곳에 안내시설을 확충해 생활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혁교기자 jhk@metroseoul.co.kr

개관 17돌 롯데호텔부산 '리멤버 1997' 이벤트

롯데호텔부산이 개관 17주년을 기념해 3월 1일부터 17일까지 감사 이벤트 '리멤버 1997'을 마련한다.

이 기간 동안 중식당 도림과 이탈리안 레스토랑 와인앤다이닝의 대표 메뉴가 17주년 특별가로 제공되며, 객실 및 레스토랑 이용 고객 중 17명을 추첨해 숙박권 등의 경품을 증정한다.

기간 내 와인앤다이닝의 크림스파게티와 도림의 자장면 2그릇은 50% 가량 할인된 1만7000원.

도림의 탕수육도 크기에 따라 2만7000원과 3만7000원으로 각각 할인 제공된다. 특별가 메뉴는 여타의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이 불가하며 런치 타임 1일 선착순 50개씩으로 한정된다.

러키 드로(LUCKY DRAW) 행운권 응모 기회는 이벤트 기간 동안 객실 및 식음업장을 이용한 전 고객에게 주어진다.

롯데호텔부산 클럽 프레지덴셜 스위트룸 1박 숙박권, 롯데호텔서울 주니어 스위트룸 숙박권 및 조식 2인, 롯데호텔부산 봄 패키지 BLOSSOM 이용권, 롯데호텔부산 라세느 2인 식사권, 롯데시네마 관람권 5매 등의 경품이 총 17명에게 추첨을 통해 증정될 예정이다. 문의 및 예약 도림 051)810-6340, 와인앤다이닝 051)810-6320 /정혁교기자

옛 석면공장 인근 주민 건강 살핀다

부산시, 환경부와 8일부터 3000명 검진

1970년대 이후 석면이 인간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가 나오기 시작했다. 호흡을 통해 가루를 마시면 폐암이나 폐증,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밝혀져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다.

부산시는 3월부터 과거 석면공장 주변 지역 및 슬레이트 가옥 밀집 지역 주민 등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무료 건강검진)를 대폭 확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와 함께 확대 추진하는 이번 조사는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것.

시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과거 석면공장(5개 지역) 인근에 거주했던 주민 총 4027명에 대해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올해는 추가로 슬레이트 밀집 지역 주민 등을 포함해 3000여 명의 건강검진을 통해 석면으로 인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사업 예산 3억2000만원(시 1억4000만원, 환경부 1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2억600만원보다 증액됐다.

또 건강검진 대상 지역도 총 11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석면공장은 사하구(한일화학 국제화강 남경산업·산도브레이크 동기브레이크), 사상구(동양 S&G) 연제구(제일화학), 기장군(아주화학기계공업사), 강서구(태화기계강파형) 총 9개 지역이며, 슬레이트 밀집 지역은 남구 문현동, 동구 범일5동 2개 지역이다.

건강검진은 오는 8일부터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에서 의료진들이 과거 석면공장 주변 및 슬레이트 밀집 지역 주민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기간은 9월 28일까지 22회 동안 진행되며, 주민들은 해당 주민자치센터에서 출장 검진 의료진으로부터 혈액검사, X선 촬영, CT 촬영 등의 검사를 받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석면 피해자 발굴을 위해 구·군 보건소에 석면피해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시교육청, 안전행정부와 협조해 과거 석면공장 인근 지역에 거주한 주민 및 학생·교직원 등 환경성 석면 노출자에 대한 명단과 현주소를 파악해 건강영향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정하균기자 jhk@metroseoul.co.kr

4대강 조사평가위 첫 현장조사 국무조정실 산하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김범철, 배덕효)는 28일 경남 창녕함안보에서 조사작업단과 공동으로 보 강도 및 세굴 측정 등 첫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4대강사업 조사작업단 하상 변동 분야 책임자인 서울대학교 박영준(공학박사·오른쪽) 교수가 수자원공사 직원과 함께 고무보트와 사이드 스캔 소나 등 장비를 이용, 창녕함안보 하류 지점의 수심과 하상의 형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사이버 법률상담 받으세요

서구 홈피에 코너 개설

부산 서구(구청장 박극제)는 3월부터 구청 홈페이지(http://www.bsseogu.go.kr)에 사이버 구민 법률상담실 을 개설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사이버 법률 상담실은 서구민들의 법률 상담을 위한 공간과 타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유사 사례 검색, 상담 사례, 법률 찾기, 생활법률 등 다양한 법률 정보를 연계해 제공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홈페이지를 통해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법률 정보, 상담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이용자 편의 중심의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2012년 4월부터 변호사를 상담관으로 위촉해 월 1회 구청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해 오고 있다. /정하균기자

인기 캐릭터 '라바' 우표 발행 지난달 28일 우정사업본부가 내놓은 국산 인기 캐릭터 '라바'를 소재로 한 한국의 캐릭터 시리즈우표 모습. 이 우표는 한국을 대표할 만한 국산 캐릭터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2011년부터 발행해오고 있으며, 뽀로로, 투닥 로보카 폴리에 이어 네 번째 우표이다.

버터플라워 머핀 만들기

연산국제제빵커피학원(원장 서옥희)은 화이트데이를 맞아 '버터플라워 머핀 만들기' 행사를 실시한다.

버터플라워 머핀 케이크는 다양한 색의 장미를 컵케이크 위에 장식해 사랑하는 연인,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을수 있는 케이크이다.

행사는 오는 13~14일 오전 11시, 오후 3·7시에 진행된다.

재료로는 당근머핀 3개, 초코머핀 3개, 버터플라워용 버터크림(색별로 6개 제공), 머핀 포장상자, 금색 초콜릿 및 펜이 제공된다. 선착순 20명 접수한다. 가격은 3만5000원. 문의 (051)864-8333

중구 '자율 내부통제' 안행부 장관상

부산 중구(구청장 김은숙 사진)가 지난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 '시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에 대해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국 246개 지자체 중 부산에서 유일하게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지난달 26일 안전행정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란 감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청렴-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 시스템을 통해 행정의 적법성·효율성·투명성을 제고시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김 중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구민을 위한 투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중구청 직원 모두가 하나가 돼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본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행정의 청렴성을 더욱 높여 부패 없는 청렴도시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중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하균기자

market index <28일>

코스피	1979.99 (+1.54)	코스닥	528.36 (+0.59)
금리	2.85 (변동없음)	환율	1067.50 (변동없음)

'전세 지옥' 분당, 서울 추월…3.3㎡당 995만원

분당 아파트 3.3㎡당 평균 전세가가 서울을 역전했다.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분당 3.3㎡당 아파트 전세가는 995만원으로 서울(991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용면적 99~115㎡가 113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82~99㎡ 1095만원 ▲66~82㎡가 1048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132㎡ 초과의 중대형은 945만원으로 평균보다 낮았다.

이에 판교의 높은 전셋값에 부담을 느끼는 세입자들이 분당으로 눈을 돌리며 분당 전세까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전용면적 98㎡ 아파트라도 판교는 6억원대에 전셋값이 형성됐지만 분당은 4억원 수준으로 가격 부담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박선옥기자

뉴스&뉴스

"캘리포니아 오렌지 20% 할인"

2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시중보다 20% 저렴한 캘리포니아 오렌지를 모델들이 선보이고 있다. 이번 행사는 5일까지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소치 마케팅 성료

● 소치 동계올림픽 무선통신 분야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스마트 올림픽'으로, 현장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삼성전자는 대회 공식 폰으로 선정된 갤럭시 노트3를 출전 선수 전원에게 제공해 현장의 열기를 가장 빠르고 생생하게 전달했다. 올림픽 파크를 비롯해 선수촌, 소치 시내에 4곳의 갤럭시 스튜디오를 운영, 30여만 명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일대일 밀착 마케팅을 진행했다. /김태균기자

제조업 BSI 넉달만에 반등

● 국내 제조업의 체감 경기가 넉 달 만에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자료에 따르면 2월 제조업의 업황 BSI는 78로 한 달 전인 1월보다 2포인트 올랐다. 제조업의 업황 BSI는 지난해 10월 81에서 11월 78, 12월 76으로 2개월 연속 하락하고 1월엔 제자리걸음을 했다가 이번에 반등했다. /김민준기자

로또복권 제591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14	21	29	31	32	37	17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액
1등	6개 숫자 일치	4,974,517,375
2등	5개 숫자+2등 보너스 숫자	57,843,923
3등	5개 숫자 일치	1,722,330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SPA처럼 저가형 '패스트IT' 바람

2만원대 모질라폰·20만원대 구글 조립폰·12만원대 태블릿 등 출시 줄이어

싸게 사서 유행에 맞춰 자주 바꾼다.

패션 산업에 혁명을 가져왔던 '패스트패션' 바람이 IT 시장에도 몰아치고 있다. 저렴한 제품을 트렌드에 맞춰 빠르게 제공하려는 IT기업들이 늘어나면서 2만원대 스마트폰, 12만원대 태블릿 PC까지 등장했다.

◆고사양 거품 걷어낸 스마트폰들

2일 업계에 따르면 파이어폭스 운영체제(OS) 개발업체인 모질라는 25달러(약 2만6800원)짜리 초저가 스마트폰을 곧 출시할 예정이다. 이 제품은 3.5인치 디스플레이, 200만 화소 카메라, 와이파이·블루투스, FM 라디오 등의 기능을 탑재했다.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를 비롯해 마켓플레이스(앱마켓), 캘린더, 시계, e메일, 음악, 비디오 등도 지원하며 멀티태스킹도 가능하다.

다만 3G(3세대)나 LTE(4세대)가 아닌 2.5세대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중국 스프레드트럼사가 제작한 저가 칩을 탑재해 가격을 놀랄도록 낮췄다.

구글도 이르면 4월 조립형 스마트폰 '아라'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 제품은 레고 블록처럼 각종 부품을 규격화해 소비자 취향에 맞게 '나만의 단말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판마다로 스마트폰의 색깔부터 디스플레이, 키보드까지 모든 것을 맞춤형으로 조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왼쪽부터 각각 모질라, 구글, 에이서에서 출시 예정인 저가 스마트 제품들.

◆유행·실속 둘 다 실현 매력

특히 필요한 기능만 사용할 수 있어 100만원대를 훌쩍 넘는 스마트폰 가격을 5분의 1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태블릿 PC 가격도 급전직하 중이다. 세계 4위 PC 제조업체인 대만의 에이서는 115달러(약 12만3000원) 가격의 태블릿인 '아이코니아 원7'을 최근 출시했다. 7인치 화면을 채택한 이 제품은 16GB(기가바이트)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다.

국내 IT업계 한 관계자는 "고사양 제품보다는 빠른 유행 흐름에 맞춘 저가형 IT 제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며 "알뜰폰 열풍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소비자들도 실속형으로 변하고 있어 '패스트 IT' 바람이 조만간 한반도에도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진에어 "승객님, 휴대폰 켜 두셔도 돼요" 진에어는 국내 저비용 항공사로는 유일하게 지난 1일 승객들의 비행 전(全) 단계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허용했다. 서울 첫날인 1일 진에어의 첫 운항편인 김포발 제주행 LJ301편 기내에서 승객들이 개인 휴대 전자기기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인' 타고 네이버 주가 급등

소프트뱅크서 지분매입설

네이버가 최근 증권시장에서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주부터 연일 사상 최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 까닭이다. 셀라를 시작한 24일 네이버 주가는 60만원대였지만 28일 81만7000원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처음으로 80만원대에 진입했다. 네이버는 시가총액 5위 포스코를 제쳤고 4위인 SK하이닉스를 거의 따라잡았다.

네이버 주가가 단기 급등하고 있는 것은 소프트뱅크 덕이다. 이 회사가 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라인의 지분 매입을 추진한다고 소문이 나면서 투자자들이 앞다퉈 네이버 주식 매입에 나섰다.

쭉 잘나가는 글로벌 IT기업이 라인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이버의 가치도 덩달아 올라간 셈이다.

라인은 지난해 3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데 이어 올해 5억 명 돌파를 점치고 있다. 미국의 왓츠앱, 중국의 위챗과 함께 어느덧 세계 3대 모바일 메신저 브랜드로 성장했다.

카카오톡에서 확인됐듯이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이 시장성과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이 좋은 시점에 '개인정보 대량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해커가 네이버의 보안망을 뚫어 개인정보를 중국 등지로 빼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해킹이 아닌 아이디 도용 사건이라고 일축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성훈기자

취업 포털 '공채의 봄' 서비스 다양

3월 상반기 공채 시즌을 맞아 취업 포털사들이 맞춤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잡코리아는 지식나눔 취업콘서트를 개최한다.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시작해 6일 부산까지 이어지는 취업 콘서트는 올해 대기업 공채 요강과 합격자 노하우를 소개한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자기소개서 첨삭 및 면접 조언도 해준다.

커리어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을 위해 이력서·자소서 힐링캠프를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커리어 컨설턴트가 서류를 일대일로 첨삭하며 구직자가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수정 보완해준다. 자기소개서 문항별 공략, 핵심 정리, 합격자 자소서 등을 선보이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오프라인 행사뿐 아니라 온라인 취업 열도 동참했다.

사람인은 취업 준비생들의 스터디 구성을 돕는 '취업 스터디' 앱을 최근 출시했다. 이 앱을 활용하면 주제별·지역별 검색 기능을 통해 희망 스터디를 찾을 수 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연락처 입력만으로도 즉시 신청 가능하다. 이용자가 직접 스터디를 꾸릴 수도 있다. 스터디 종류, 제목, 장소, 모집 인원, 모임 시간, 상세 내용만 기입하면 간단히 스터디 모임을 만들 수 있다. 신청 현황은 실시간으로 공지된다. /김은희기자

metro |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송로 2가 1 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61
발행인·회장 장근호
사장·편집인 김용학
편집국장 조인호
부산지사장·직대 김막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650-2100
독자센터 (02)721-9881

발바닥, 발가락 통증? 더 이상 참지마세요!

발바닥에 껌이 붙은 것처럼 먹먹하거나, 발을 잘못 딛는 경우 발가락에 찌릿하게 전기통하는 느낌이 든다면 지간신경종(몰톤씨신경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아무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발바닥이 아프기 시작하는 지간신경종은 처음에는 발가락이 찢혀지는 부분인 발바닥의 앞쪽에 무언가 이물질을 한 겹 끼워놓은 것처럼 느낌이 둔감하거나 마치 모래를 밟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감각이 이상하기도 한다. 가만히 있을 때에도 발바닥 앞쪽이 화끈거리고 심하면 통증마저 느껴진다고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다.

병원에서 엑스선을 찍어보고 허리가 원인인가 싶어 허리 MRI도 촬영하고, 혈관문제인가 싶어 혈관조영술을 해봐도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보니 증상은 점점 심해지고,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은 물론 걷는 것마저 힘들어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게 된다.

현대인의 발은 끊임없이 혹사당하고 있다

발은 신체의 모든 뼈 중 5분의 1이 몰려 있고 평생토록 지구의 4바퀴 반에 해당하는 거리를 움직인다. 최근 발바닥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라는데 통증은 곧 질병의 신호, 발의 작은 통증이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의 고통을 주기도 한다.

예쁜 발-작은 발'이라는 통념이 아직도 남아있다. 특히 여성들은 발이 크면 미련해 보일까봐 발이 작고 날씬해 보이는 신발을 선호하는데 이런 신발을 애용하는 여성들은 발의 앞부분인 중족골과 발가락 신경에 생기는 지간신경종을 주의해야 한다.

지간신경종은 발가락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과도한 압력을 받거나 발가락 사이에서 눌려 붓는 질환을 말한다. 굽이 높은 구두를 신는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굽이 높은 구두를 신으면 발가락 신경과 주변 조직에 과도한 자극이 가해져서 몸무게 전체의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발바닥의 앞쪽 부위가 저리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는 증상으로 중년 이후 분들에게 흔히 발견된다. 가끔 발바닥 통증을 허리쪽의 이상 때문인 것으로 오인해 병원으로 오는 환자도 제법 있다.

이제 멀리 가지 않더라도 부산에서도 무지외반증과 지간신경종 등의 발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부산에서도 지간신경종 무지외반증 치료해

부산에서 지간신경종 무지외반증 등 족부관련질환을 전담하여 케어하는 족부클리닉을 운영중인 대한민국정형외과 이준호 원장은 "몸을 지탱하는 받침대인 발은 26개의 뼈와 33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오묘하게 움직이지만 어느 한 곳만 이상이 생겨도 보행에 필요한 균형을 잃고 연쇄적인 통증을 일으키게 된다"며 "발가락은 한 번 변형되면 다른 발가락을 변형시키고 무릎, 허리 관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변형과 통증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손과 발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손가락의 움직임이 중요한 손과 달리 발은 체중을 부하하여 걷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행을 편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어 치료해야 하며 발이 불편하면 보행이 틀어지므로 무릎, 엉치, 척추에도 무리가 갈 수 있다.

디스크, 하지정맥류, 혈관장애 등으로 오인, 오랜기간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

지간신경종은 매우 다양한 감각 이상을 호소한다.

보통 가만히 있을 때는 거의 증상이 없다가 걷거나 딱딱한 바닥에 닿으면 발바닥 앞쪽이 화끈거린다. 특히 발가락과 발가락으로 연결되는 뼈 사이의 신경 부위에서 가장 많이 느낄 수가 있다. 이 부위는 발바닥중에서 체중의 압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이다.

마치 껌이 붙은 것처럼 먹먹한 것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발을 잘못 딛는 경우 발가락에 찌릿한 느낌이 뻗치고 때론 발이 시리거나 뜨겁다고 호소한다. 특히 상당수가 먹먹하며 발이 저리다고 하는데 디스크나 하지정맥류, 혈관 장애 등으로 오인받아 MRI나 혈관검사 등을 해보지만 오랜 기간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신경을 잘라내지않고 절골술을 시행, 지간신경종의 원인을 제거한다

대한민국정형외과 이준호원장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후된 지간신경종 자체를 절제하지 않고, 중족골 사이에 끼어서 붓게 된 지간신경의 압박을 감소시켜주는 절골술을 시행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간혹 시술 후 부종이나 동통, 부정유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대한민국정형외과의원의 이준호 원장은 지간신경종의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수술법을 시행하여 수술 부작용을 더 줄이고, 재발을 걱정도 덜어준다. 그러면서 수술은 부위마취로 이루어지며 의료보험이 적용되므로 환자부담도 덜었다.

대한민국 정형외과 이준호 원장은 오랜 경험과 수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손질환과 발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효과적인 치료와 빠른 회복을 위해 수부클리닉과 족부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 고운손과 편안한발을 위한 치료노력에 매진하고 있다

조특법 무산에 우리금융 민영화 '쑥대밭'

경남·광주은행 분할 법인세 반영 '적자 날벼락'
법안 처리 예상해 '선물 상폐' 했다가 번복 안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둘러싼 정치권 싸움에 우리금융이 적자 쇼크를 겪고 투자자들도 혼선을 빚는 사태가 벌어졌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지난해 4분기에 연결 기준 5377억원의 당기순손실로 적자 전환했다고 28일 정정 공시했다. 지난 6일 289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으나 26일 당초 예상했던 경남·광주은행 분할 기일이 미뤄지면서 세금 등 관련 비용이 실적에 대거 반영된 정정 실적을 발표했다.

앞서 우리금융은 2월 26일 개최한 임시 이사회에서 우리금융 민영화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계열사 경남·광주은행의 분할 기일을 당초 3월 1일에서 5월 1일로 2개월가량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날 열린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따른 여파다.

조특법은 우리금융 민영화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경남·광주은행 분할로 발생하는 법인세 6500억원을 면제해주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 처리가 불발되면서 우리금융은 4분기 실적에 오는 5월 납부해야 하는 이 세금을 회계상으로 선반영하게 됐다.

STX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지원과 팬택의 워크아웃 신청 등에 따른 충당금까지 2200억원 추가로 반영되면서 우리금융 적자폭은 더 커졌다.

갑작스러운 일정 지연에 주식시장에서도 혼선이 빚어졌다.

우리금융 선물 및 옵션은 국회의 조특법 처리와 이에 따른 경남·광주은행의 3월 1일 분할을 기정사실화하고 27일 상장폐지됐다. 그러나 분할 기일 연기 소식에 26일 장 마감 후 전해진 탓에 상폐를 번복할 수 없게 됐다.

또 선물 상폐에 이어 거래정지 수순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수식은 그대로 정상적으로 매매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민영화 절차 지연은 우리금융 실적 악화 등 결국 주가에 부담을 주는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금융은 정치권 싸움으로 민영화가 지체되는 것에 강력한 대응으로 맞섰다.

우리금융은 28일 늦은 오후에 이사회를 열고 민주당 기재위원과 새누리당 경남지역 의원·정부에 대한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임시국회서 처리하기로

조특법 개정이 무산돼 경남·광주은행 분할이 무산되면 향후 우리은행의 매각 작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에서 나온 조치다. 수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의 민영화가 좌초되면 투기성 자본인 사모펀드가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정치권은 더 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국회 재정위원회는 조특법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베이징에도 기업은행 떴다

은행들 해외진출 활발

주요 은행들이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새로운 활로 찾기에 본격 나서고 있다. 이제 해외 진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기 때문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27일 중국 베이징분행을 오픈했다. 이번 베이징분행 개점으로 기업은행은 톈진과 칭다오, 선양, 옌타이 등 중국 내 8개 지역에 15개의 영업망을 갖추게 됐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지 진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교민과 현지 고객에게도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중국을 비롯해 동남아 등 신흥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해외 진출은 신흥 성장 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현지 상황을 감안해 경쟁력을 보유한 비즈니스 영역에 집중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신한은행도 올해 수익성 강화 방안으로 해외시장 현지화 전략을 계획하고 있다. 신한은행 측은 "글로벌 현지화와 타깃 시장 확대, 창조적 영업 활동 등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우리은행 역시 차별화된 현지화 전략을 통해 해외 자산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저위험 저수익의 대표적 여신인 발전 프로젝트와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사업 투자 분야에 관심을 기저울 만하다"면서 "신규 수익원 창출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채연기자

쇼핑족 유혹하는 이탈리아 라이프스타일 2일 오전 서울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본점에서 모델들이 이탈리아 라이프스타일 편집매장인 '일라비타(Lavita)' 입점을 기념해 상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매장에는 의류 브랜드 '오도디레' 등 수제 자전거 '라스트라나', 오직시나, 수제 초콜릿 '루커스 버버' 등 23개 브랜드의 이탈리아 상품을 판매한다. /연합뉴스

GS건설 공시위반 사상 최대 과징금

GS건설이 손실을 미리 알고도 투자 위험을 밝히지 않은 채 수천억원대의 회사채를 발행한 것과 관련 공시 위반으로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를 열고 GS건설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심의했다. GS건설 제재안은 다음달 12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GS건설은 실적 악화를 예상했으면서도 회사채 발행 때 증권신고서에 투자 위험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GS건설은 지난해 2월 5일 신용등급 AA-의 회사채를 3800억원(이자율 3.54%) 규모로 발행했다. 하지만 불과 이틀 뒤인 7일 2012년 4분기 영업손실 800억원을 공시했고, 이어 4월에는 1분기 5354억원의 영업손실을 발표했다.

연이은 '어닝쇼크'에 GS건설 주가는 최대 40%까지 급락했고, 신용등급도 A+로 떨어졌다.

/이선욱기자

집값 상승세 한계… '홈' 원하면 사라

금융가 사람들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금융위기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던 수도권 주택 시장이 5년여 만에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각종 규제 완화와 대출 확대를 통해 인위적으로 집값을 떠받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전세난에 시달리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하나 고민일 수밖에 없다.

박원갑(사진)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홈과 하우스부터 먼저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홈(home)과 하우스(house) 두 단어 모두 '집'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지만 홈은 건물로서의 집이 아닌 가정으로서의 집을 뜻한다. "우리 집에 갈 것이다"는 영어로 "아이 윌 고 하우스(I will go house)"가 아닌 "아이 윌 고 홈(I will go home)"으로 쓰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 위원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집을 지금 사야 할까요?'라는 질문은 '지금 집을 사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라는 의미"라며 "본인은 실수요자라고 주장하면서, 그래도 집값은 올라야 한다고 말한다면 집을 홈이 아닌 하우스로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령화, 저성장 등의 사회 상황을 감안할 때 지금의 집값 상승세는 오래갈 수 없고, 따라서 하우스를 지금 사는 것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며 "하지만 내 집 마련에 따른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기 위해 홈을 사려는 거라면 괜찮다"고 말했다.

박 전문위원은 "개를 키운다면 개와 함께 살기 좋은 집, 어린 자녀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길을 건너지 않고도 통학할 수 있는 집, 화초를 가꾼다면 볕이 잘 드는 집이 좋은 것 아니냐"며 "가격 외 가치와 환경에 초점을 맞춘다면 꼭 아파트를 선호할 이유도, 다세대·다가구의 낮은 환금성을 지적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격과 가치를 따지기에 앞서 무리한 대출을 통한 내 집 마련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선옥기자 sun@

MWC 휩쓴 '모바일 코리아'

삼성 갤럭시S5 필두로 제조·통신 ·IT중소기업 앞선 기술력 입증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4'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성황리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다음 세대를 창조하라(Creating What's Next)'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1800여 기업, 7만5000여 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전시 및 각종 콘퍼런스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서 단연 우리나라 기업들의 활약상이 돋보였다.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기업들은 이번 'MWC 2014'에서 앞선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였다.

특히 'MWC 2014'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5 언팩(제품 출시) 행사'였다. 삼성전자는 행사 첫날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5'와 함께 '삼성 기어 핏', '기어2', '기어2 네오' 등 웨어러블 기기도 선보였다. 국내외 취재진과 참관객 등 5000여 명이 행사장에 몰리며 갤럭시 시리즈의 인기를 입증했다.

비록 일각에선 '기대보다 혁신적이지 못하다'는 평을 듣기도 했지만 '이용자 편의를 위한 스마트폰 본연의 기능에 충실했다'는 반응을 얻으며 향후 시장 반응을 기대하게 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5와 삼성 기어핏은 MWC 기간 중 12개의 '최고 제품상'을 거머쥐는 모습도 보였다.

LG전자 역시 'LG G프로2' 등 선보이며 스마트폰 시장에서 국내 제조사의 앞선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 입증했다. LG전자는 G프로2, 웨어러블 기기 '라이프밴드 터치' 등을 앞세워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조사'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SK텔레콤과 KT 등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도 글로벌 통신 시장에서 뛰어난 롱텀에볼루션(LTE)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SK텔레콤과 KT는 광대역 LTE, LTE-A 상용화 및 3밴드 LTE-A 기술 등 첨단 네트워크 기술을 비롯해 다양한 LTE 요금제와 특화 서비스 등 종합적인 LTE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에서 '최고의 LTE 공헌상'을 나란히 수상했다.

'MWC 2014' 기조연설에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가 기조연설자로 나선 데에도 업계가 주목했다. 대개 영향력 있는 이동통신사나 제조사 최고경영자(CEO)가 맡아온 기조연설을 국내 벤처기업인이 맡았다는 것은 그만큼 카카오의 사업 모델이나 카카오톡 서비스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MWC에서는 국내 제조사, 통신사, IT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모바일 시장에서 앞선 기술력을 선보이는 계기가 됐다"며 "전 세계가 우리 기술력에 주목하는 가운데 이번 MWC가 국내 대기업뿐 아니라 IT 중소기업들에도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이렇게 예쁜 오븐 보셨나요?" 삼성전자가 삼성만의 타임리스 프리미엄 디자인을 구현해 출시한 '2014년형 삼성 스마트 오븐'을 모델이 소개하고 있다. 이 제품은 프리미엄을 블랙 보디에 반짝이는 블랙 크리스탈 글로스를 손잡이에 적용하고, 신비로운 아이스 블루 디스플레이를 채용했다. /삼성전자 제공

국회 넘어간 '수신료 4000원'

방통위 안건 의결 논란 · 국민 73% 반대 입장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KBS 수신료 인상안'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이경재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는 현행 월 2500원에서 월 4000원으로 올리고 광고는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이날 안건은 표결에서 전체 5명의 위원 중 여당 측 3명 찬성, 야당 측 2명 반대로 통과됐다.

그동안 방통위는 KBS의 재원을 안정시켜 공영성, 공정성을 강화하고 광고를 축소시켜 타 방송사의 콘텐츠 역량 강화로 연계될 수 있다며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이번 인상안에서도 방통위는 2017~2018년 광고를 축소하고 2019년까지 광고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수신료에서 EBS 지원 비율을 현행 2.8%에서 7%까지 늘린다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이 같은 인상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앞서 2007년과 2010년에도 KBS 수신료 인상안은 국회 상정됐다가 폐기된 바 있으며, 현재 여론도 인상안에 대해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 JTBC가 여론조사기관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최근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신료 인상 찬성은 19.8%, 반대 73.4%로 반대 의견이 압도했다.

야당에서도 "수신료 인상은 국민의 부담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국민 이익이 담보되는지 철저하게 따져보겠다"며 부정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어 과연 KBS 수신료 인상안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영기자 ljy0403

지난달 26일 현지 시간, 스페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 MWC 2014에서 삼성전자가 개최한 '삼성 개발자 데이' 행사 모습. /연합뉴스

한국전력 2017년까지 14조대 부채 감축 선언

정부 산하기관 중 과다 부채 공기업으로 분류된 한국전력공사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14조원대의 부채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한전은 2일 2017년까지 14조7000억원 규모의 자구 계획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사업 구조조정으로 3조원가량을 줄일 방침이다.

해외 사업도 수익성 중심으로 내실화할 계획이다.

/유주영기자 boa@

모바일 시장 올해 '꼭짓점'

매출액 362조 '최고' 찍고 내년부터 성장 후퇴… 중저가 보급형 위주 재편 탓

IT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맞은 장이 내년부터 축소될 전망이다.

시장조사업체 IHS는 2일 최신 보고서를 통해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 매출액이 올해 3394억 달러(약 362조3000억여 원)로 지난해보다 9.5% 증가해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3342억 달러로 올해보다 1.5% 감소하며 역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후년인 2016년에는 3275억 달러로 2.0%, 2017년 3194억 달러로 2.5%로 후퇴할 것으로 내다봤다.

IHS는 이런 역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모바일 기기 시장이 성숙기로 접어들어 고가 프리미엄 제품에서 중저가 보급형 제품 위주로 재편되는 데 따른 결과로 분석했다. 이 결과 판매 대수는 증가하는 반면 판매 단가가 하락해 전체 매출은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도 삼성전자와 애플 등 주요 업체가 최근 중저가 모바일 기기 라인업을 확대하는 등 중저가 모바일 기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전체 모바일 기기 판매 대수는 올해 17억4500만 대로 지난해보다 6.3% 늘고, 2015년 18억900만 대(3.7%), 2016년 18억6000만 대(2.8%), 2017년 19억1000만 대(2.7%)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모바일 기기 평균판매단가(ASP)는 올해 194달러로 지난해보다 2.6% 오르며 최고점을 찍은 이후 2015년 185달러(-4.6%), 2016년 176달러(-4.9%), 2017년 167달러(-5.1%)로 내려갈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189달러로 2012년(163달러)보다 16.0%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태균기자 ksj1@metroseoul.co.kr

무약정·반값으로 LTE 즐겨라

CJ헬로비전 청소년 유심 요금제 출시

CJ헬로비전의 알뜰폰(MVNO) 서비스 '헬로모바일'은 신학기를 맞아 무약정 반값 요금제인 '조건없는 유심 LTE청소년원'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원'은 음성·영상·데이터 사용 시 차감되는 청소년 요금제의 공통 단위를 말한다.

유심(USIM)만 구입하면 가입할 수 있는 이 요금제는 '조건없는 유심 LTE청소년원 34' '조건없는 유심 LTE청소년원 42'의 두 가지로 구성됐다.

34·42요금제의 데이터는 각각 750메가바이트(MB)·1.5기가바이트(GB)씩 제공된다. 2만 원이 두 요금제 모두 문자메시지 전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와이파이는 추가 요금 부담 없이 쓸 수 있으며 무료 데이터를 다 소진한 후 차감되는 요율은 1MB당 20.48원이다. 음성이나 영상통화 시에는 초당 2.5원, 문자는 1건당 15원, 멀티문자메시지(MMS)는 200원이 소요된다.

김종렬 CJ헬로비전 상무는 "조건없는 유심 LTE청소년원은 약정 기간이 없는 데다 기본료를 50% 할인해 요금 부담도 줄였다"며 "헬로모바일은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고객 지향적인 요금제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알뜰폰 시장 리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승희기자 ssh@

'T맵' 실시간 교통정보 모든 DMB 서비스 SK플래닛이 국내 모든 DMB 기반 교통정보 서비스에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SK플래닛의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 'T맵'은 MBC·KBS에 이어 SBS, YTN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DTSDMB TPEG Service사와 교통정보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일부터 DMB 기반 실시간 교통정보서비스(TPEG) 송출에 들어갔다. /SK플래닛 제공

KT 모든 광역시까지 '광대역 LTE-A'

KT는 서울과 수도권에 이어 모든 광역시까지 '광대역 LTE-A'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광대역 LTE-A란 광대역 20MHz 주파수에 추가로 10MHz를 묶어 최고 속도 225Mbps를 제공하는 차세대 기술이다.

지난해 9월 국내 최초로 서울을 시작해 11월 수도권 전 지역과 지하철 전 구간에 걸쳐 광대역 LTE-A 서비스를 확대한 KT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할당 조건에 따라 1일부터 광역시에 광대역 LTE-A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KT의 광대역 주파수인 1.8GHz 대역은 이전부터 LTE 주력 주파수로 전국에 기지국을 촘촘히 구축해 놓은 상태인 데다,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광역시에서도 기지국 펌웨어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타사보다 더 빠르게 넓고 촘촘한 커버리지를 완성했으며 지상뿐 아니라 지하철, 건물 내부, 외곽 지역까지 모든 구간에서 광대역 LTE-A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다만 이번 서비스 제공에도 불구하고 225Mbps 속도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해당 속도가 지원되는 단말기가 출시돼야 한다. 서울, 수도권, 광역시의 기존 KT 가입자들은 LTE 스마트폰의 경우 최대 100Mbps, LTE-A 스마트폰의 경우 최대 150Mbps의 속도만 체감할 수 있다.

/이재영기자 ljy0403@

여성 경제활동 포기 이유… 결혼 > 양육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최대 요인이 결혼이며 이는 자녀 양육보다 영향력이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동국대 민세진 교수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20세 이상 여성 가운데 기혼 여성이 미혼 여성보다 경제활동을 그만둘 확률이 37.8%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대 여성의 경우 결혼하게 되면 미혼 여성보다 일을 포기할 확률이 58.2%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등학생 이상의 자녀가 있는 여성은 무자녀 여성보다 경제활동을 포기할 확률이 3% 정도 더 높았다. 전경련은 그동안 여성이 경제활동을 그만두는 주된 요인으로 여겨졌던 자녀 양육보다 결혼이 10배 이상 높은 것이어서 이례적인 연구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 정부가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에 관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면서 결혼을 전후로 여성이 일을 그만두지 않도록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혼 이외에도 우리나라 20세 이상 여성이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되는 주요인은 이혼과 사별이었다.

또 남편이 있는 여성이 이혼이나 사별한 여성보다 37%가량 경제활동에 나설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교육 수준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 확률은 거의 차이 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세진 교수는 "한국 여성의 고용률 제고에는 비교적 낮은 실업률을 감안할 때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인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가 중요하다"며 "한국 여성은 핵심 연령(25~54세) 고용률이 6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29위(OECD 평균 66.2%)에 불과하며 결혼을 전후로 급격히 경제활동 참가율이 감소하는 이른바 'M자형' 패턴을 보이고 있어, 특히 30대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고용률 제고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두탁기자 kimdt@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 모집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1억 달러 이상 글로벌 전문기업 400개사 육성을 위해 3일부터 2차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산업부는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방안'을 발표하고, 1차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 46개사를 전성해 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차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은 최근 3년간 연간 수출 2000만 달러 이상 1억 달러 미만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중에서 수출 잠재력, 매출 대비 수출 비율, 수출 확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월 중 선정한다.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4대 플랫폼을 통해 기업 글로벌화를 위한 프리미엄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산업부와 유관 기관의 기존 사업도 우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관심 있는 기업은 4월 1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접수 신청하면 된다.

/유주영기자 boa@

규제 혁파 없이는 경제 못 살린다

청론탁설

유 병 철
<언론인>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이 경제 활성화에 '올인' 할 태세다. 지난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직접 발표하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 수출 균형경제' 등 3개의 축을 토대로 9개 부문에 경제 혁신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성장률 4%를 달성해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고 국민소득 4만 달러의 터전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자면 무엇보다 생산의 주역인 기업의 의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기업 환경은 매우 취약하다. 각종 규제가 그대로 존치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제가 양산되는 중이다. 여기에다 노사 관계가 매우 열악하다. 전 세계 조사 대상 60개국에서 56위에 이를 만큼 강성 노조 국가다. 또한 명분이야 어떻든 주요 그룹의 총수가 잇따라 구속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사기는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우선 기업 경영을 둘러싼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포럼(WEF) 조사 결과 144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117위로 규제가 많은 '규제 공화국'이다. 때문에 전경련에서는 '보이지 않는 규제'까지도 과감히 철폐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먹는 물보다 공장 폐수가 깨끗해야 한다'는 황당한 규제도 있다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규제감량제'를 통해 '원 인 원 아웃(One in One out)'에서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으로 발전시켜 최근 2년간(2012~2013년) 12억 파운드(약 2조 1358억원)의 규제비용을 줄인 바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영국의 경험을 벤치마킹해 '규제총량제'도 입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도 많은 장애가 예상된다. 국회에서 이뤄지는 의원입법의 비율이 계속 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대 국회에서는 전체 입법 건수의 41.2% 정도였으나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무려 70.7%로 늘어나고 19대에서는 80%를 넘을 전망이다.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나는 입법 활동 속에 규제총량제가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정부에서 부탁해 입법으로 이어지는 '청부 입법'이 횡행하고 있다. 더욱이 지자체에서 제정되는 각종 규제 조례도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다. 따라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지 않으면 대통령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출발은 규제 혁파부터 해야 한다.

시련의 금융계…털고 일어나자

뉴스룸에서

박 정 원
<경제산업부 차장>

새해가 지나가고 봄이 오고 있지만 금융계는 여전히 추운 시련의 계절이다. 잇따라 터진 금융사고에 카드사 정보 유출 등의 영향으로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임원 등 고위층부터 아래로는 텔레마케터 등 영업인들까지 모두 힘든 나날을 살아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당사자들인 카드업계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영향이 전 금융권에 파장을 미쳐 다른 업종에서도 영업 실적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모 캐피털 사의 홍보부장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업무 영역도 틀리지만 카드사 정보 유출 영향으로 우리도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불신이 높아 일단은 의심부터 하니 영업직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다"라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이미 올해는 거의 실적을 포기한 상태다. 3개월 영업정지에 들어간 KB국민·롯데·NH농협 등은 수천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나머지 카드사들도 마냥 좋은것만은 아니다.

이 상황에서 영업을 확대하자니 눈치가 보이고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이미 이익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드업계는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나서는 시점이었는데 너무 큰 장애물을 만나 버렸다. 또 다른 금융계인 증권업계의 부진도 장기화되고 있다. 너무 많은 회사들이 난립해 고 경쟁을 하다 보니 증권사의 수익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보험사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 확실히 영업이 예전같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 당국이 금지했던 텔레마케팅(TM)을 조기에 재개토록 허용했지만 정상 궤도에 올라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움츠렸던 개구리가 멀리 뛴다는 옛말이 있듯이 이번 일련의 사태들은 계기로 금융사들이 털을 내고 다시 출발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희망적인 것은 오랜 불황의 끝이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금융 당국은 물론 업계에서도 올해 말부터는 어느 정도 경기가 풀리고 매출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금융사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같은 실수를 두 번 저지르지는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되찾는 것이 우선이다. 새로운 수익원을 찾고 경영 건전성도 높여야 한다.

어느 때보다 추운 계절을 보내고 있는 금융가 사람들. 이제는 넘어진 게 아니고 툴툴 털고 일어나고 있는 중임을 국민들에게 증명해주기를 기대해본다.

포토프리즘 · 봄기운과 봄옷

한편한 봄기운을 되찾은 1일 오후 화사하고 가벼운 옷차림을 한 시민들이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 인근 옷가게를 찾아 진열된 봄옷들을 구경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살라망카의 개구리

인문학 산책

김 민 웅
<성공회대 교수>

서양 중세의 지식인들은 여행하는 자들이기도 했다. 홀로 서재에 파묻혀 있기도 했지만 세상을 아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새로운 지식의 소문이 들리는 곳을 찾아나섰다. 이들의 발걸음은 그래서 일종의 순례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했다.

이러한 지식 여행은 중세 서양에서만 보이는 건 아니었다. 고대 그리스의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도 현장 답사의 산물이었고, 중세 아랍 최고 역사가로 꼽히는 이븐 할둔의 '역사서설'도 긴 여정을 통한 결과다. 혜초 스님이 불법(佛法)의 고향 인도까지 디녀온 과정을 기록한 여행기도 다르지 않다.

훗날 데시데리위스 에라스뮈스가 영국에서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모어를 만나고, 요한 괴테가 이탈리아에서 깊은 감동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당대의 지식을 압축해서 마주할 수 있는 곳은 역시 대학이었고, 대학 또한 지식 흡박이 높았던 이들에게 여정의 목표가 되었다. 파리 대학을 비롯해 로마나 케임브리지대학도 그런 이들의 순례지가 되었다.

그런데 유럽 최고 대학 출신들도 언제 가보나 했던 곳이 바로 스페인의 코르도바였다. 여기는 기독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유대교의 전통이 공생하면서 서로 지적 자극을 주고받으며 다채로운 문명의 자양분을 섭취하고 있었다. 유럽의 르네상스도 이 코르도바의 지적 향기에 힘입은 바 막대하다.

이 코르도바의 지적 향기를 흡수한 대학 도시가 다름아닌 살라망카다. '돈키호테'에는 '살라망카의 학사'라는 인물이 등장할 정도다. 흥미로운 것은 이 도시의 상징이 개구리라는 점이다. 이제는 도서관으로 쓰이는 고풍스러운 건물 입구 위에 개구리가 조그맣게 조각돼 있고 저 위에 개구리가 학사모를 쓰고 뛸 기세를 보이는 관광 상품을 팔고 있는 것도 이 도시다.

살라망카의 개구리는 오랜 준비를 거쳐 때가 왔을 때 힘 있게 도약하는 지적 성취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한 준비 기간은 동면(冬眠)과도 같아서 아무도 그 움직임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그 존재 자체를 망각하게 된다. 이건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답답한 자기 존재 증명이 부재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걸 이겨내는 것이 살라망카의 훈련이다.

깊고 넓은 준비가 없는 지식과 문명은 잠시 반짝하다 사라질 뿐이다. 지식을 소비 상품으로 읽거나 순간의 인기에 몰두하는 사회는 그런 한계에 직면하기 마련이다. 살라망카의 개구리는 살라망카만의 개구리가 아니다.

대학생활 잘 하는 법 가이드

기자수첩

장 윤 희
<경제산업부 기자>

3월 첫째 주 월요일은 대학교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이다.

본지는 이날 캠퍼스 특집판을 발행했다. 신입생들의 대학 생활 노하우, 유용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특집판 준비에 참여하면서 값진 대학 시절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먼저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4년 내내 지녀야 한다.

비싼 등록금과 청춘을 담보로 대학에 가지만 우리 사회는 대학생들을 방치한다.

'대학 잘 가는 법'만 관심 있지 '대학 생활 잘 하는 법'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10대 시절 환상에서 깨어나 진로, 군대, 취업, 결혼 등 20대에 들이닥칠 인생 과제의 대비책을 세워놓아야 한다.

학교 울타리를 벗어날 것도 추천한다.

학과 동기들뿐 아니라 타 학과, 다른 학교 친구들과도 어울리면서 세상 보는 폭을 넓혀야 한다. 각종 대외 활동과 인턴십 등으로 실무 경험을 쌓고 멘토도 찾아야 한다.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하는 우물 안 개구리 시절은 10대 때 충분히 했다. 대학교에서도 진로 설정 프로그램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거나 산학협력을 늘려야 한다.

전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 80%. 방황하는 대학생들도 그만큼 늘어났다. 고민이 있으면 학내 상담기관의 문을 두드리는 자세가 필수다. 등록금이 걱정된다면 한국장학재단과 교내 장학 프로그램은 샅샅이 뒤져야 한다. 움직이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 '14학번'의 힘찬 출발을 응원한다.

홉플러스, 독일정통 밀맥주 상륙

홉플러스는 지난해 바이에른 맥주의 성공적인 론칭과 밀맥주의 인기에 힘입어 3월부터 독일 정통 밀맥주 '킬리세조밀레' 를 본격적으로 권케키로 판다. 소비자가격은 1600원(500㎖). /홉플러스 제공

파나소닉·크레신·소니 헤드폰 음질 '★★' 그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헤드폰이 가격이 비싸다고 반드시 품질이 우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제품의 경우 최대 음량이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유통 중인 공기 차단식의 밀폐형 헤드폰 23개 업체 31개 제품을 평가한 결과, 2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최대 음량이 큰 것으로 나타나 최대 음량을 제한하는 유럽 기준(EN50332-2)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기준에는 소음성 난청을 방지하기 위해 헤드폰과 이어폰이 94㏈ 크기의 소리가 나올 때 재생기의 최대 출력을 75㎷ 이상 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크리에이티브(싱가포르)와 TDK(일본)의 두 제품은 사용할 때 재생기의 최대 출력이 75㎷ 미만이었다.

특히 헤드폰 구입에 가장 큰 요인이 되는 음질 품질 평가에선 대부분이 별(★)4~5개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10만원 미만의 제품 가운데 파나소닉(RP-HXD3)과 크레신(C960H) 등 2개 제품, 10만~20만원 제품 가운데 소니(MDR-XB920)는 상대적으로 낮은 별 2개를 받는 데 그쳤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의 비교 공감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정연화기자

청첩장에 쓰고 싶은 '웨딩 장소'

르네상스 서울 호텔 소규모 하우스 웨딩 실속있는 기획 매력

르네상스 서울 호텔이 소규모로 웨딩을 진행하는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특별 웨딩 메뉴를 제공하는 소규모 하우스 웨딩 상품을 새롭게 출시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유망 업종 분야 '2014 블루슈머'에 스몰 웨딩족이 선정된 것처럼 거품을 뺀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랑·신부가 증가함에 따른 상품으로 르네상스 서울 호텔은 트렌드에 맞춰 실속 있는 소규모 웨딩 메뉴를 기획하게 됐다.

또 르네상스 서울 호텔은 유니버설 홀에서 최소 100명 이상 규모의 웨딩을 예약하는 고객들에게 훈제연어, 브로콜리 크림수프, 안심 스테이크 등으로 구성된 6코스 양식 메뉴를 5만5000원(세금 및 봉사료 포함)에 제공하며 꽃 장식은 275만원(세금 포함)에 이용 가능하다.

4층에 위치한 유니버설 홀은 기존의 평범한 웨딩에서 벗어나 트렌디하고 개성 있는 웨딩을 선호하는 예비 신랑·신부들에게 인기가 많다. 200명 안팎의 하객을 수용할 수 있어 소중한 가족, 지인,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감각적이고 프라이빗한 파티 형식의 하우스 웨딩이나 웨딩 파티 장소로 진행하기에 안성맞춤이다.

또한 전문 웨딩 담당 코디네이터와의 상담을 통해 예비 신랑·신부가 원하는 그들만의 크리에이티브하고 유니크한 웨딩을 꾸미면서 동시에 특급호텔의 세심하면서도 품격 있는 서비스를 그대로 누릴 수 있다.

더불어 르네상스 서울 호텔은 '잇(it) 웨딩'을 통해 고객 맞춤형 메뉴, 업그레이드된 홀 데커레이션과 리셉션 스타일링, 전문 웨딩 담당 코디네이터 등을 제공하고 있다. 꽃 장식부터 식사 메뉴와 음료, 위장 및 크리스털 장식 등 데커레이션에 대한 모든 부분을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르네상스 서울 호텔은 2014년도에 결혼식을 계약하는 커플을 대상으로 신부가 웨딩 때 착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티아라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특별 웨딩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문의 02)2222-8600 /함계훈기자

일부 생필품 약속한 듯 가격 올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조사결과

지난해 생활필수품들의 가격 변동을 조사한 결과, 전체 31개 품목 중 16개 품목이 연초 대비 연말 평균 소비자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5개 품목은 가격이 하락했다. 하지만 주요 다소비 품목들의 인상폭이나 인상률, 인상 시기 등이 비슷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무시했으며, 이들 기업들 사이에 '부당 편승 가격 인상'이나 '업체 간의 담합'도 의심된다는 것이다.

2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평균 가격 인상률은 0.7%로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한 해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추장 9.7%, 우유 9.3%, 두부 8.6%, 밀가루 5.0% 등 다소비 품목에서 주로 가격 인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지난해에도 서민 장바구니 체감 물가는 여전히 부담스러웠다고 협의회는 분석했다.

◆우유 제품 인상률 상위 포진

제품별로 가격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원유가격연동제 시행으로 지난해 우유 품목의 가격 변동이 컸다. 지난해 1월 대비 12월의 가격을 보면 매일우유(1ℓ), 서울우유(1ℓ), 맛있는 우유GT(1ℓ)가 각각 10.4%, 9.5%, 8.2% 가격이 인상되 가격 인상률 상위 8개 제품 중 3개에 이름을 올렸다.

◆동일 제품군 가격 인상률 비슷

협의회의 시각으로 보니다. 결과, 제조업체들은 특정 제품군에 대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 인상을 발표했다.

초코파이(오리온)와 카스타드(롯데제과) 제품의 경우 2013년 한 해 동안 각각 1.3%, 1.4% 가격이 인상돼 인상률 차이가 0.1%에 불과했다. 가격 인상 시기도 초코파이는 2012년 9월, 카스타드는 2012년 10월로 나타나 불과 한 달 차이에 지나지 않았다.

밀가루(CJ제일제당·대한제분·삼양사·동아원)와 장류(CJ제일제당·대상·샘표식품)는 1~2월, 우유(유업계 전체)는 8~9월 제조회사의 가격 인상이 발표됐다. 인상률 역시 유사했다.

최근 LG생활건강의 '코카콜라'와 롯데칠성음료의 '펩시콜라'의 경우 올해 1~2월 내 각각 6.5%, 6.6%로 거의 동일하게 가격이 인상된 것도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분석된다는 것이 협의회 측의 설명이다.

◆소비자 선택권 무시한 '담합'

협의회는 "2013년 생활필수품 가격 조사 결과 동일한 품목의 경우 브랜드별 가격 차이가 미미했고 가격 인상 시 그 시기와 인상률 또한 유사해 가격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제조사별 제조 원가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부당 편승 가격 인상'과 '암묵적 담합'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협의회 측은 이런 현상과 관련해 "기업들이 독과점 시장이라는 시장 환경을 이용해 가격 경쟁을 배제하려는 구태를 벌이고 있다"며 자성을 촉구했다. /정연화기자 mmi@metroseoul.co.kr

뉴스 & 뉴스

한돈 명예홍보대사 위촉

●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2일 삼삼데이를 맞아 우리 돼지고기 한돈의 소비 촉진을 위해 유명 요리사, 건강 전문가 및 파워블로거 등 15명을 '2014 한돈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명승권 박사, 배화여자대학교 전통조리학과 김정은 교수 등 한돈 명예홍보대사로 선정된 대표들은 한돈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우리 돼지고기 한돈의 소비 촉진에 앞장설 예정이다.

프리메라 서포터스 모집

● 화장품 브랜드 프리메라는 15일까지 프리메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학생 서포터스 '프리메니아 6기'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 및 면접 진행 후 최종 30명을 뽑는다. 선발된 서포터스는 4월부터 6월까지 프리메라의 신제품 품평, 아모레퍼시픽 본사 견학, 뷰티 트렌드 분석 및 온·오프라인 홍보 등 각종 마케팅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RIA DAY

3월 3일

랏츠버거

~~₩4,500~~ → ₩2,500

3월 4일

화이어윙

(2조각)

1+1

PM 2:00 - 10:00

4월 RIA DAY를 기대하세요!

- 제휴카드, 롯데멤버스카드 할인 제외
- 홈서비스 및 일부점포 제외

생활가전 '톱 훈남' 전성시대

밥솥 라이벌 쿠쿠·쿠첸 이승기·장동건 효과 톡톡 '조인성 제습기' 매출 급증

생활가전 업체들이 자사 제품 광고에 경쟁적으로 톱스타급 남자 연예인들을 내세우고 있어 눈길을 끈다. 주 고객층이 주부들인 만큼 '훈남'을 내세워 모델 기용 효과를 톡톡히 보려는 전략이다.

쿠쿠전자는 2010년부터 약 3년간 전속모델로 활동한 배우 원빈에 이어 지난해 9월 가수 겸 배우 이승기를 새 모델로 발탁했다. 당시 밥솥 '풀스테인리스 2.0 에코' 출시에 맞춰 이승기가 출연한 TV 광고를 방영하며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친 결과, 이 제품은 선보인 지 4개월 만에 매출 100억원을 돌파했다. 첫 2개월 판매량은 이전 신제품 평균보다 100% 증가했다.

리홈쿠첸은 2012년 9월 배우 장동건을 모델로 선정했다. 장동건을 모델로 내세운 '명품철정 클래식 밥솥'은 '장동건 밥솥'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판매 호조를 보였다. 출시 3년이 넘은 지금도 월평균 7500대가 팔릴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위닉스는 작년 4월 배우 조인성을 제습기 브랜드 '위닉스뽀송'의 모델로 내세웠다. 지난해 국내 제습기 시장이 2배 성장하고, 위닉스가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기록하는 데에 '조인성 효과'가 한몫했다고 위닉스는 분석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모델에 등 크게 투자하는 것은 그만큼 업계 경쟁이 치열하고, 빅 모델이 주는 매출 상승 효과도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스무디킹 "OK캐쉬백 고객 20% 할인" 스무디 브랜드 스무디킹이 최근 고객들이 스무디를 더욱 가볍게 즐길 수 있도록 'OK캐쉬백과 신규 제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 스무디킹 매장에서 제품 주문 시 OK캐쉬백 카드를 제시하면 스무디를 포함한 전 제품에 매해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OK캐쉬백 포인트는 10% 차감되고 일부 매장에서는 서비스가 제외된다. /스무디킹 제공

유통가 컬러풀…향기 폴폴

생활용품·카페 메뉴 등 봄기운 담은 제품 손짓

얼어붙었던 겨울이 물러가고 봄기운이 일기 시작하는 요즘, 유통업계가 핑크빛 컬러와 은은한 봄 향기를 담은 제품들을 선보이며 봄맞이 채비에 나섰다.

무채색 계열의 단조로운 색감을 사용하던 생활용품에도 핑크빛 봄바람이 불고 있다.

타파웨어 브랜즈는 투명한 유리 일색이던 용기에 보라색과 분홍색의 화사한 그러데이션을 입힌 '미디엄 냉장고 텐더' 5종과 '주니어 냉장고 텐더' 5종을 한정 판매한다. 850㎖, 500㎖ 용량의 용기 2종을 5개로 늘려 주부들이 실생활에서 더욱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CJ LION의 구강 전문 브랜드 시스테마는 장미 꽃잎이 그려진 핑크색 제품 용기로 감성적인 디자인을 입힌 '약한 잇몸을 생각한 치약'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잇몸 관리가 필요한 임산부와 중장년층 여성들을 위한 제품으로 미세 거품이 입속 오염물질을 자극 없이 제거해 주며 치은염과 치주염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또 함께 선보인 '약한 잇몸을 생각한 덴탈워시'는 로즈민트 향이 상쾌함을 더해줄 뿐 아니라 입안을 헹군 뒤에도 은은한 로즈 향이 남아 입 냄새 제거에도 효과적이다.

◆입안 가득 상큼한 봄을 맛보다

스타벅스는 벚꽃을 모티브로 한 '체리블라썸 라테'와 '체리블라썸 화이트 초콜릿'을 선보였다. 화이트 초콜릿에 벚꽃 풍미가 어우러져 봄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이 음료들은 국내에서 자체 개발했으며 식용 벚꽃을 그대로 갈아 넣은 것이 특징이다. 스타벅스는 이외에도 벚꽃 모티브의 텀블러와 머그, 머플러 카드도 내놨다.

아모레퍼시픽의 차 브랜드 오설록은 제주도 꽃의 향을 그대로 담은 '메모리 인 제주'를 출시했다. '메모리 인 제주'는 일반 화차와는 다르게 꽃에서 직접 추출한 향기를 차에 담아 과일 향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벚꽃향 가득한 올레', '금귤향을 품은 우잣담', '동백이 피는 곶자왈', '달콤이 바라보는 바당' 등 총 4종으로 구성됐다.

CJ LION 시스테마 관계자는 "제품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컬러와 향기 등 감성적인 부분을 강화해 여심을 자극하는 제품들의 출시가 유통업계 전반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혜인기자 hsuna0404@metroseoul.co.kr

'별에서 온' 별 주얼리 인기 반짝반짝

도민준의 '별 고백링' 등 별 모티브 제품들 눈길

지난주 종영한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의 후폭풍이 거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드라마 '별그대' 열풍으로 별을 모티브로 한 주얼리가 인기를 끌고 있다. 무엇보다 19회 방영분에서 남자 주인공 김수현(도민준)이 전지현(천송이)을 위해 준비한 프러포즈 링이 화제다. '별고백링'으로 불리는 이 반지는 티타에 두 보석이 몽 파리 컬렉션으로 도민준의 별과 천송이의 별이 만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이 제품은 파리 에트왈 광장에서 만나는 연인의 모습을 디자인에 담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 밖에도 별을 콘셉트로 한 다양한 주얼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에이피엠모나코가 선보인 '홈 스텔라시옹' 라인은 별자리라는 뜻을 가진 컬렉션으로 블랙과 화이트 컬러의 조합이 시크함과 귀여움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이 중 여러 개의 별을 하나의 주얼리에 담은 제품은 코리가 길게 늘어진 별똥별을 연상케 한다.

스와로브스키에서도 별 모양의 귀고리와 반지, 펜던트 등을 다양하게 선보이며 인기몰이 중이다. /박지원기자

봄바람보다 먼저 온 '에어컨 열풍'

봄이 시작되기도 전에 여름 더위를 대비해 에어컨·선풍기 등 냉방 가전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마켓은 지난달 19~25일 '창문형 에어컨'과 '스탠드형 에어컨'의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00%, 58%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실외기가 별도로 필요 없어 설치가 쉬운 창문형 에어컨의 경우 숙박업체 등의 수요가 매출 증가의 요인이라고 회사 측은 분석했다.

선풍기 판매량도 증가세를 보여 '스탠드형 선풍기'와 '책걸이 선풍기' 판매는 전년 동기보다 126%, 78% 각각 늘었다. 인테리어 선풍기 판매량은 전체적으로 25% 증가했다.

G마켓 관계자는 "이번 여름에도 무더위가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수요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강남 언니의 비밀 잇백…제인꾸뛰르 몰라?

봄·여름 신상 뮤즈백 출시 홈페이지 특가 판매 진행

제인꾸뛰르가 2014년 봄·여름 컬렉션 신제품 '뮤즈백'을 출시했다.

일상에서 언제나 빛나는 존재로 남고 싶은 바람을 모던하고 우아한 디자인의 가방으로 풀어냈다.

제인꾸뛰르는 강남 쪽에서 입소문을 타며 성장한 브랜드로 세계적인 명품 업체들이 사용하는 조고가의 가죽을 사용한 특별한 디자인 가방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제인꾸뛰르의 가방은 일대일 주문을 받은 뒤 하나하나 보석을 쫓아서 만드는 방법으로 제작해 '꿈은 백'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제인꾸뛰르(www.janecouture.co.kr)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상품을 온라인 특가로 판매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 조사 결과 '나만 알고 싶은 브랜드'로 손꼽히기도 했다"면서 "온라인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이번 시즌 오프라인으로 확장을 기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초기 디스크 질환은 도수 감압 운동 치료!

중기·말기 디스크 질환은 10분 정도의 고주파로 치료 끝
일자목 및 오래 앉은 자세에 의한 목·허리 통증 등 완화

30대 여자 회사원 B씨는 오랜 직장 생활로 목이 늘 뻐근하고 어깨가 무겁거나 뭉친 느낌으로 직장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느껴 회사 근처 한의원과 정형외과 등을 찾아 치료받았다. 하지만 통증의 호전 없이 최근 두통과 어지러움까지 생기면서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위해 여러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이 자주 찾아 이름이 알려진 강남조이스병원 여의도점을 내원했다.

이승주 강남조이스병원 원장은 일자목이 오래돼 거북목으로 진행된 상태라고 설명하며 경추 자기공명영상(MRI) 결과 제4~5~6 경추 추간판 팽출증도 동반됐다고 B씨의 상태를 진단했다. 이후 이 원장은 경추 신경주사 치료를 통해 B씨를 치료했고 B씨는 이 치료 후 병원의 비수술 척추치료센터에서 여러 유명 연예인들이 치료받았던 경추 도수·감압·운동 치료를 일주일 1~2번씩 3개월간 받았다. 현재 B씨는 통증 없이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다.

◆환자 맞춤형 치료로 회복 도와

이처럼 시대가 발전하면서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많아져 만성 목 통증 및 어깨 통증, 일자목에 의한 두통이나 목 뻐근함, 만성 허리 통증 및 골반 틀어짐 증상 등을 호소하는 현대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증상의 일시적인 호전만 주는 침치료, 추나 요법, 교정 치료, 약물치료, 신경 성형술 등으로 치료를 받다보니 허리 및 목 디스크 질환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척추관절 치료 병원으로 유명한 강남조이스병원은 척추 전문의가 먼저 진료를 한 후 첨단 장비를 이용해 정확하게 질환을 진단한다. 이후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환자의 질환·나이·증상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시행한다.

특히 강남조이스병원은 환자 1명을 척추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물리치료사 4명이 전담하는 통합 진단·치료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척추 치료를 선진 체계화시켜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고 있다.

또 강남조이스병원은 손으로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해주면서 잘못 자리 잡은 척추관절과 뼈는 바로잡고 눌린 신경의 압박을 감소시키는 도수치료, 첨단 컴퓨터 장비를 이용해 디스크 내 압력을 감소시켜 디스크의 회복을 돕는 감압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본원 외에 여의도역, 홍대입구역에 위치한 강남조이스병원은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환자 맞춤형 치료를 시행 중이다. /강남조이스병원 제공

치료, 디스크로 약화된 관절·근육 및 인대를 강화시키면서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운동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강남조이스병원은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본원 외에 여의도역, 홍대입구역에서 직장인들 및 중장년층들을 위한 목·허리 및 어깨 통증 치료, 체형 교정(일자목·골반 불균형·휜다리·척만증 등) 전문 치료 클리닉을 개설해 운영 중이며 3차원 생역학 디스크 및 관절 치료센터, 연골과 인대 치료 및 재생센터를 설립해 환자들에게 합리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서울대 본원 02)875-2200, 여의도점 02)736-2200, 홍대점 02)336-2200

/황재용기자

엄마, 선생님 말씀이 잘 안들려요

새학기 자녀 귀건강 체크!

새 학기가 시작됐다. 모든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학업에 집중해 성적이 향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터. 하지만 우리 아이가 학업에 집중하기를 바란다면 아이의 귀 건강을 먼저 체크해야 한다. 중이염·난청·이명 등 각종 질환이 학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면역력 약한 아이 중이염 위험

성인과 달리 아이들은 이관의 기능이 완전하지 않고 면역력이 약해 중이염에 걸리기 쉽다. 또 중이염은 감기로 인해 발병하는 경우가 많지만 집단 환경에 노출된 아이의 경우 호흡기 등을 통해 바이러스가 빠르게 전파돼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 질환은 대부분 특별한 문제 없이 치료되지만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청력에 이상이 생겨 잘 듣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의사표현이 힘든 어린이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귀에서 진물이 흐를 경우 ▲평소보다 잠을 잘 못 자고 많이 보챌 경우 ▲작은 소리에 반응을 하지 않거나 듣는 데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경우 등이 있다면 중이염을 의심해야 한다.

◆학습에 치명적인 이명

이명은 '삐~' 등의 기계음 혹은 바람 소리, 매미 소리 등이 들리는 증상을 말한다.

이명은 평소 주변 잡음에 묻혀서 잘 인지하지 못하다가도 주변이 조용해지면 다른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들리는 특징이 있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아주 치명적이다.

즉 책을 읽거나 공부를 위해 집중할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소리에 신경을 쓰면 쓸수록 더 크게 들리기도 해 집중력을 떨어뜨린다.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먼저 찾아야 하는데 귀 검사가 가능한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특정 질환과 동반되는 경우가 있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이어폰 장시간 사용 말아야

이외에도 습관처럼 이뤄지는 이어폰 사용은 집중력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어폰 이용을 자제시켜야 한다.

김현이 이어케어네트워크 조이이비인후과 원장은 "한번 훼손된 청력은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어폰이나 헤드폰 등을 장시간 착용하지 않고 30분에 5분 정도는 휴식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hwangjy@metroseoul.co.kr

외출땐 마스크 쓰고 배·도라지 섭취를…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법

미세먼지가 연일 가슴을 누리고 있다. 미세먼지가 몸속에서 정화·배출되지 못하고 기관지나 폐에 쌓이면 비염, 기관지염,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게다가 미세먼지는 혈관을 타고 다른 장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과 친해져야 한다. 호흡기가 건조해지면 미세먼지를 배출시킬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외 활동 시에는 반드시 황사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 외에도 보호 안경, 모자 등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 실내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외출 후에는 손을 씻는 것은 물론 목욕을 통해 개인 위생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고 건조하지 않도록 실내 습도를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고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는 배, 도라지, 마늘, 해조류, 녹차, 홍삼 등이 있다. 특히 예로부터 기침과 기관지 환자에게 좋은 것으로 알려진 배와 도라지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김연경 청상국제병원 소화과 과장은 "코 점막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코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고 흐르는 물에 코를 자주 세척해야 한다. 또 목 안을 촉촉하게 유지시켜줘야 미세먼지 배출이 용이하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강해진 쏘나타…연비 괜찮을까

현대차 신형 LF 모델 내일 언론 공개 행사

현대자동차가 신형 쏘나타(LF) 데뷔를 앞두고 오는 4일 남양연구소에서 국내 기자들에게 쏘나타 프리뷰 행사를 연다. 올해 국내에서 데뷔하는 자동차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모델인 만큼 이날 행사에서 어떤 내용이 공개될 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해에도 현대차는 제네시스를 언론에 미리 공개한 바 있다. 이때 외부 디자인만 노출됐었고 실내 디자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주요 내용은 텍스트 자료를 통해 공개했고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은 바 있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신형 쏘나타는 기존 쏘나타처럼 2.0 CVVL 가솔린과 2.0 가솔린 터보 등 2가지 엔진과 자동변속기가 장착되고, 추후 디젤과 하이브리드가 탑재된다.

신형 쏘나타는 제네시스와 마찬가지로 차체 강성 보강에 주력해 독일 일본 중형차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수준의 강성을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대제철에서 생산하는 초고장력 강판 비율이 전체 강판의 절반 이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 쏘나타에 없던 운전석 무릎 에어백이 추가된다. 덕분에 미국 IIHS에서 실시하는 스몰 오버랩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안전성을 갖췄다.

현대차의 신형 쏘나타 렌더링 예상 모습 /카스쿠프닷컴 제공

현대차는 신형 쏘나타에 첨단 장비도 대거 탑재할 예정이다. 이미 제네시스 그랜저 등에 장착된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ASCC)을 비롯해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LDWS), 스마트 후측방 경보 시스템(BSD),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AEB) 등이 신형 쏘나타에서도 선보인다. 또한 직각 주차와 평행 주차까지 지원하는 어드밴스드 주차 보조 시스템(ASPAS)도 옵션으로 마련된다.

이렇게 여러 면에서 내용이 충실해졌지만, 문제는 가격과 연비다. 첨단 장비가 추가된 만큼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형 제네시스에서 지적됐던 연비도 관심거리다.

현대차는 실용 영역에서의 연비 개선과 함께 디젤, 하이브리드 모델, DCT 변속기 장착 등을 통해 연비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4일 언론 공개 행사 후 사전 예약에 들어가며,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판에 나설 예정이다.

/김성록기자

▲한 줄 평: 어느 차도 닮지 않은 독특한 개성이 돋보인다. 강력한 파워는 기대 이상이다 ▲평점: ★★★★★(별 다섯 개 만점)

세상 어디에도 없던 차

임의택의 차차차

■ 벤츠 CLA 45 AMG

기존에 없던 준중형급 4도어 쿠페형 세단 독특 강력한 파워·다양한 매력 겸비 '도로 위 팔색조'

세상에 강력한 파워를 갖춘 차는 많지만 매력을 함께 갖춘 차는 찾기 힘들다. 단순히 숫자로 느끼기 힘든 다양한 매력을 두루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만난 메르세데스 벤츠 CLA 45 AMG는 팔색조의 매력을 갖춘 차다. 강력한 파워와 함께 독특한 장르라는 점이 이 차가 주목받는 이유다.

강한 직선과 곡선이 강조된 차체는 개성이 듬뿍 담겨있다. 앞모습은 A클래스를 닮았고 옆모습은 CLS의 곡선을 닮았다. 쿠페형 준중형급 세단이라는 독특함이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이자 매력이다. 차체 길이는 4630mm로 현대 아반떼(4550mm)보다 길고 쏘나타(4820mm)보다는 짧다. 휠베이스(앞뒤 바퀴 축간 거리)는 2700mm로 아반떼와 같다.

대시보드는 A클래스와 유사하면서도 AMG 모델만의 특색이 곳곳에 배치돼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센터콘솔에 장착된 AMG 변속기다. 200 CDI는 변속기가 스티어링 칼럼에 장착된 반면에 45 AMG는 고리 모양의 독특한 기어 노브가 센터콘솔에 장착된다. 물론 이 변속기는 전통적인 '손맛'을 위한 건 아니다. D 드라이브 상태에서 패들 시프터만 건드리면 바로 수동 모드로 전환되기 때문.

전륜 기반의 4륜구동은 평상시 구동력이 앞뒤 100대0으로 나뉘지만 상황에 따라 50대50까지 구동력이 자동으로 바뀐다. 앞뒤 구동력이 45대55로 세팅되는 벤츠의 후륜 기반 4매틱 모델과 차이로 보이는 부분이다. 이러한 구성은 급가속이 필요하거나 접지력의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 도로에서 뛰어난 접지력으로 화답한다. 후륜 기반 모델보다 일상적인 주행에서 연비를 높이는 데도 유리하다.

CLA 45 AMG의 하이라이트는 강력한 파워의 엔진이다. AMG 최초의 직렬 4기통 2.0ℓ 가솔린 터보 엔진을 얹고 최고 출력 360마력을 뿜어낸다. ℓ당 출력은 무려 181마력으로 쏘나타 2.0 가솔린보다도 출력이 높다. 최대 토크 45.9kg.m은 2250~5000rpm의 폭넓은 구간에서 분출되고 터보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폭발적인 가속력을 보여준다.

강력한 파워에 어울리는 안정된 핸들링은 단단한 서스펜션과 광폭 타이어 덕분이다. 타이어 사이즈는 앞뒤 모두 235/35R19이고 강력한 브레이크 성능과 궁합을 이뤄 안정적인 핸들링을 완성해낸다.

고성능 차를 몰 때 피하기 힘든 문제는 높은 유지비인데, CLA 45 AMG는 이른 듀얼 클러치 미션 적용과 효율적인 구동력 배분으로 해결했다. 그 결과 도심 연비는 9.3km/ℓ, 고속도로 연비는 12.9km/ℓ를 받았고 이번 시승에서는 8.5~9.0km/ℓ를 기록했다.

CLA 45 AMG는 이전까지 없던 준중형급 4도어 쿠페형 세단이다. C63 AMG와는 급이 다르지만 독특한 매력을 갖추고 있고, 6970만원의 가격은 성능에 비해 합리적이다. BMW나 아우디에 비교할 만한 차가 없다는 점도 이 차의 가치를 더욱 빛내준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 수입 소형차 중고차 시세 >

(단위:만원)

제조사	차종	2009년식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벤츠	B-클래스	1,900	2,100	2,340	-	-
	뉴C클래스	2,750	2,950	3,240	3,740	4,010
BMW	뉴3시리즈	2,650	2,850	2,960	3,930	-
아우디	뉴A3	1,900	2,000	2,410	2,500	
	뉴A4	2,460	2,580	2,890	3,380	3,730
미니	쿠퍼	1,850	2,060	2,180	2,430	2,680
폭스바겐	골프 TDI	1,640	2,120	2,320	2,600	2,740
	CC	2,440	2,630	2,990	3,080	
렉서스	IS	2,320	2,600	3,090		
푸조	308	1,800	2,130	2,080	2,190	2,610

정보제공: 다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왕수박'과 성격 딴판… 실제론 답답이"

'왕가네 식구들' 끝낸 오현경

시청률 50%에 육박했던 KBS2 "왕가네 식구들" 종영 후 만난 오현경(44)은 포상휴가로 배우들과 함께 홍콩에 다녀온 이야기부터 신나게 털어놨다. "계속 먹고만 왔다. 다녀왔더니 살이 쪽 쪘다"는 말을 시작으로 지난 6개월간의 촬영 뒷이야기를 털어놨다.

◆ "수박이에게 빙의됐어요"

'왕가네 식구들' 흥행의 일등 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현경이 연기한 왕가네 첫째 딸인 허영심 많고 이기적인 왕수박이 시청자들로부터 욕을 먹을수록 시청률은 무섭게 치솟았다.

"처음엔 수박이 성격이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표현할 지 몰라서 많이 힘들었고, 스스로 내 연기력만 탓했죠. 실제로는 수박이와 달리 답답한 성격이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수박이가 못된 게 아니라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서 감정이입이 됐죠. 나중엔 사람들이 빙의됐다고 하던데요. 하하하."

허영심 많은 왕수박이 매회 반복했던 '나 미스코리아 나갔던 여자야'라는 대사에 대해 묻자 "처음에 농담으로 자존심 상해서 못 하겠다고 했다. 난 미스코리아 진이지 않나. 요즘에도 어디만 가면 자꾸 이 대사를 시켜서 창피하다"고 너스레를 떤 뒤 "그래도 이슈가 돼서 애들도 따라 한다고 하니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철없던 수박이가 드라마가 종영할 즈음 철이 든 결말에 대해 "자식 때문에 변하고 성장한다는 결말이 마음에 든다. 생각했던 것보다 늦게 변해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수박이의 성장 과정을 짧지만 제대로 보여줬다. 드라마는 끝났어도 수박이의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만족해했다.

◆ "문영남 작가는 멘토 같은 분"

드라마를 집필한 문영남 작가와는 인연이 상당히 깊다. 1992년 방송된 문 작가의 첫 작품인 MBC '분노의 왕국'을 시작으로 '폴리스' '조강지처 클럽' 에 이어 이번 작품까지 20년 넘게 호흡을 맞춰 왔다.

자극적이고 과장된 설정이나 전개 탓에 대중의 호불호가 뚜렷이 갈리는 문 작가지만 오현경은 "극중 엄마로 나온 김해숙 선배가 연기자로서의 롤모델이라면 문 선생님은 멘토 같은 분"이라며 존경심을 드러냈다.

"문 선생님은 극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세요. 문 선생님 작품을 할 때마다 마음이 치유돼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주·조연 상관없이 캐스팅한 배우들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극에서도 현실에서도 소외받지 않도록 배려해주는 점은 정말 존경스러워요."

> '나 미스코리아 나갔던 여자야'
> 아이도 따라한다니 기분좋아
> 김해숙 선배님은 롤모델이죠
> 난 지금 연기 배워가는 과정

다만 문 작가의 캐릭터를 연기할 때 두려운 점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못된 짓을 하면 나중에 더 돌려받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번에도 따귀를 많이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했다"면서 "머리채 잡히는 신을 찍다가 목을 다쳐서 울었다. 목이 지금도 잘 돌아가지 않아 병원에 다닌다"고 이야기했다.

◆ "이젠 더 이상 울지 않아요"

부침 많은 연예계라지만 오현경처럼 굴곡 많은 인생을 산 여배우도 참 드물다. 1989년 미스코리아 진으로 화려하게 데뷔한 후 배우로 활발하게 활동했지만 이후 여러 큰 악재들을 겪으며 긴 슬럼프를 보냈다. 그러다 2007년 문 작가가 집필한 '조강지처 클럽' 출연을 계기로 배우로 재기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이달 초 방영될 SBS '힐링캠프'에서 털어놓을 예정인 그는 "예전에는 지난 이야기들을 꺼내면 울컥할 때가 많았다. 그러나 이젠 많이 성숙해져서 더 이상 울지 않는다"면서 밝은 미소를 지었다.

현재는 싱글맘으로 초등학교 5학년 딸을 키우고 있다. "딸아이를 엄하게 키우는 편이에요. 사람은 첫인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인사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죠. 그 외에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요. 그저 지금처럼 일할 수 있고 아이와 친하게 지내는 것만으로 행복하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책임감 때문에라도 연기가 더 깊어진다는 그는 "어떤 배역을 맡고 싶다는 욕심은 없다. 배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역을 맡든 잘 표현하는 연기자가 되고 싶다. 난 지금 연기를 배워가는 과정"이라며 데뷔 26년차에도 여전히 겸손한 배우의 모습을 보였다.

/박준혁기자 [illegible]
사진/한준희 카운드(이기림) 디자인/박은지

강호동·유재석 내달 새 프로그램 출격… '강라인' '유라인' 대이동 전망

예능계 지각변동 오나

연예계 MC 양대 산맥인 강호동(사진 왼쪽)과 유재석(오른쪽)이 올봄 나란히 새 예능 프로그램을 선보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송가가 들썩이고 있다. 최근 유·강 체제가 약해지고 비예능인들의 무대로 변한 예능 판도가 다시 두 사람을 중심으로 재편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재석은 다음달 초중순 첫 방영 예정인 KBS2 파일럿 프로그램 '나는 남자다'를 준비 중이다. 그가 신설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건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 이후 약 4년 만이라 기대가 높다. 이 프로그램은 남자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토크쇼 형식으로 MBC '무한도전'과 KBS2 '해피투게더'로 유재석과 인연을 맺은 주기쁨 작가가 참여한다.

강호동 역시 다음달 MBC 파일럿 프로그램 '팬클럽 대결'을 선보인다. 스타가 자신의 팬클럽과 함께 출연해 또 다른 스타의 팬클럽과 라이벌전을 펼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봄 개편을 맞아 다양한 신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각 방송사들은 치열한 편성 눈치 작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나는 남자다'와 '팬클럽 대결'은 비록 정규 편성을 확정 짓지 않은 파일럿으로 첫 선을 보일 예정이지만 거물 MC들이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중 KBS의 경우 '맘마미아'와 '하하도'의 폐지를 논의하는 한편 박명수 출연의 '밀리언셀러', 신동엽 출연의 '미스터 피터팬', 이휘재 출연의 '두근두근 로맨스 30일' 등 이달 혹은 다음달 파일럿으로 내보낼 예정이다. MBC와 SBS도 뒤따라서 대대적인 개편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유재석·강호동의 움직임에는 '유라인' '강라인'으로 불리는 예능 스타들의 이동도 필연적으로 따를 전망이라 올봄 방송가는 더욱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이진환기자 [email]@metroseoul.co.kr

권진아 조 1위… "가창력 성장 놀랍다"

'K팝스타3' 톱8 결정전

권진아(사진)가 SBS '일요일이 좋다-서바이벌 오디션 K팝스타 시즌3' 톱 8 결정전에서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A조 1위를 차지했다.

10팀의 참가자들이 A조와 B조로 나뉘어 열린 경연에서 A조에는 권진아·짜리몽땅·알맹·샘김·버나드 박 등 강력한 우승 후보들이 한데 모여 시작 전부터 치열한 접전을 예고했다.

권진아는 프라이머리의 '씨스루'를 기타 연주와 함께 특유의 리드미컬한 발라드로 소화해 심사위원 전원의 극찬을 끌어냈다. 박진영은 "이번 시즌에서 가장 가창력이 많이 성장한 참가자"라고 했고, 유희열은 "완전히 다크호스로 떠올랐다"고 감탄했다.

샘 김은 지드래곤의 '그XX', 짜리몽땅은 브라운아이드소울의 '브라운 시티', 버나드 박은 김태우의 '하고 싶은 말', 알맹은 송창식의 '담배가게 아가씨'를 자신의 개성을 살려 불렀다.

이들은 톱 10 경연부터 새롭게 추가된 라이브 반주 등 웅장한 무대 속에서 제 실력을 살렸지만 엄격한 심사에서 단점을 지적받았다.

짜리몽땅과 알맹이 2위와 3위로 톱 8에 진출했고 샘 김과 버나드 박은 B조 경연에서 탈락한 2명과 패자부활전을 벌인다. 패자부활전에서는 100명의 시청자 심사위원단의 비밀투표를 거쳐 2명의 합격자를 선출한다.

B조에는 한희준·장한나·썸띵·남영주·배민아가 겨지렸다. 이들의 경연은 9일 방송된다.

/유순호기자 [email]@

'별에서 온 그대' 열풍을 소개하는 중국 CCTV의 한 시사 프로그램 방송 장면

/HB엔터테인먼트 제공

중국은 지금 '별그대' 열풍

현지방송 집중조명… 한국 잡지·치킨집 2시간 줄서기

최근 종영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의 열풍이 급속도로 중국을 뒤덮고 있다.

'별그대'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중국 CCTV의 한 시사 프로그램은 최근 '도 교수, 별에서 왔나?'라는 제목으로 9분간 '별그대' 열풍을 다뤘다. 중국의 유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웨이보와 바이두의 검색어 5개 중 4개가 '별그대' 관련으로 채워졌고, 한국 잡지를 파는 곳과 한국의 치킨집에서는 2시간 이상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2일 기준으로 웨이보 인물 검색 순위에서 전지현은 1위, 김수현은 10위를 기록했다. 김수현의 웨이보 팔로워 수는 460만 명을 넘어섰다.

베이징 제2외국어대의 한 교수는 "'별그대'의 도민준(김수현)이 가져온 것은 한국 문화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중국의 문화, 습관, 유행 등으로 사회적 현상을 넘는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방송 다시 보기 서비스를 하는 주요 사이트인 아이치이(iQiyi), pps, LETV, 칸칸(kankan), PPTV 등에서 '별그대' 다시 보기 조회 수는 1일 기준으로 22억 건을 넘어섰다고 제작사는 밝혔다. /유순호기자

빅뱅 승리 '엔젤 아이즈' 출연

빅뱅 승리가 SBS 새 주말극 '엔젤 아이즈'(가제)에 출연한다.

승리는 119 구조대원이 되고 싶어 한국으로 돌아온 교포 출신 청년 테디 서 역을 맡았다. 인명 구조에 대한 남다른 사명감을 가진 테디서는 꽃집을 운영하는 한 여자를 보고 한눈에 운명적인 사랑을 느낀다. 또 직설적인 성격에 쾌활하고 순수한 인물이다.

'엔젤 아이즈'는 가슴 설레는 첫사랑이 12년 만에 다시 만나 펼치는 아프지만 맑고 깨끗한 러브 스토리이자 천사의 눈으로 보는 정통 멜로 드라마다. 드라마 '야왕'과 '유령'을 공동 연출한 박신우 PD와 '꽃보다 남자'의 윤지련 작가가 의기투합해 기대감을 높인다.

'엔젤 아이즈'는 '세 번 결혼하는 여자' 후속으로 다음달 방송될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email]@

강렬하고 섹시한 2NE1

두번째 월드투어 서울공연 이틀간 1만2000여 팬 열광

1·2일 서울 공연으로 월드투어의 막을 올린 2NE1이 객석의 환호를 받고 인사를 전하고 있다. /YG엔터테인먼트 제공

걸그룹 2NE1이 두 번째 월드투어의 서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2NE1은 2일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월드투어 '올 오어 나싱(AON)' 서울 공연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여자도 남자만큼 강할 수 있다는 콘셉트의 이번 공연에서 2NE1은 강인한 매력에 섹시함까지 선보여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날 공연의 포문을 연 신곡 '크러시'는 싱어송라이터로 발돋움한 멤버 CL이 직접 작사·작곡에 참여한 노래다. 2NE1은 데뷔곡 '파이어'와 '아이 돈 케어' '어글리' '내가 제일 잘 나가' 등 히트곡을 연이어 부르며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다.

'크러시'에 이어 공개한 2NE1의 가창력이 돋보이는 신곡 '살아봤으면 해'는 역시 CL이 작곡에 참여한 곡이다.

멤버들은 "개인적으로 이번 앨범이 무척 마음에 든다"며 애정을 드러냈다. 신곡 릴레이가 이어지며 이번 앨범의 타이틀 곡 '컴백홈' 무대도 공개됐다. '컴백홈' 무대는 어쿠스틱 버전과 원곡 버전으로 각각 선보이는 등 다양한 매력을 뽐어냈다.

어쿠스틱 버전에서 기타 연주를 보여주려했던 산다라 박은 "F코드를 못 져서 그 코드가 들어간 노래는 안 치는데 '컴백홈'은 F코드로 시작해 F코드로 끝난다"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이날 공연에는 데뷔를 앞둔 신인 그룹 위너도 등장해 무대를 풍성하게 꾸몄다. 또 CL의 솔로곡 '멘붕'과 '스크림' 등 CL의 매력이 돋보이는 무대도 이어졌다.

4년 만의 정규앨범 '크러시'의 발매에 맞춰 열린 이번 월드투어는 지난 1일에 이어 이틀간 1만2000명을 동원한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중국, 일본 등 9개국 12개 도시에서 총 15회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장의건기자 lan@metroseoul.co.kr

2만여 대륙팬 홀린 비스트

아이 원트 뮤직 파워 콘서트

그룹 비스트(사진)가 한국을 대표하는 K-팝 가수로 2만여 명의 중국 팬을 사로잡았다.

비스트는 1일 선전의 선전완체육센터에서 열린 '아이 원트 뮤직 파워 콘서트 인 심천(선전)'에 출연해 '픽션'을 시작으로 '쇼크' '섀도우' '아름다운 밤이야' 등 히트곡을 연이어 부르며 힘 넘치는 퍼포먼스와 함께 화려한 무대를 선사했다. 비스트는 '픽션'의 후렴구를 따라 하며 열광하는 팬들에게 중국어로 화답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이날 공연에는 할동·공연에 좀처럼 등장하지 않는 리위춘·임요가·아이이·에바·한경·플라랍에프·빠플레이디·레에 등 중화권 톱 가수들이 총출동했다.

/정순호기자 sun@

베일 벗은 인피니트 유닛 '가슴이 뛴다' 첫 공개

사진 왼쪽부터 엘·성종·성열. /뉴시스

그룹 인피니트가 새 유닛의 존재도 예고했다.

인피니트는 지난달 28일 월드투어 서울 앙코르 공연 '원 그레이트 스텝 리턴즈'에서 새 유닛인 인피니트F를 최초로 공개했다. 엘·성열·성종으로 구성된 유닛으로 '가슴이 뛴다'라는 신곡을 선보였다. 이 곡은 중독성 있는 후렴구와 멤버들의 귀여운 안무가 인상적이다.

인피니트는 이날 공연에서 '가슴이 뛴다'를 비롯해 3곡의 신곡을 공개했다. 지난해 스페셜 걸로 성공적인 활동을 한 호야·동우의 유닛 인피니트H는 '얼론 어게인'과 강렬한 힙합곡으로 관객의 귀를 사로잡았다. 우현은 직접 작사한 솔로곡 '눈을 감으면'으로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인피니트는 다음달 새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며, 인피니트F를 비롯한 다양한 유닛과 솔로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효진기자 jeonh@

비, 中 인기 예능 '원맨쇼'

'쾌락대본영' 90분 단독 게스트 출연

가수 비(사진)가 중국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쾌락대본영'에 단독 게스트로 출연한다.

비는 3일 이 프로그램에 단독 게스트로 90분 편성을 받아 녹화에 들어간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9월 비가 출연했던 후난TV의 오디션 프로그램 '쾌남' 결승전 생중계 반응이 좋았다"며 "현지에선 이미 '쾌락대본영'의 방청권이 매진됐다"고 전했다.

이번 녹화에서 비는 6집 '레인 이펙트'의 수록곡 '30 섹시' 라 송' 등을 중국 무대에서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쾌락대본영' 측은 "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비에게 숨겨진 많은 재미와 다채로운 매력을 찾아내 중국 팬들에게 색다른 무대를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비의 녹화분은 오는 8일에 방송될 예정이며 비는 중국 활동에 박차를 가해 오는 28일 베이징 국가 체육관에서 열리는 '2014 레인 이펙트 쇼 인 베이징'에서 중국 팬들과 공식적으로 만난다.

/김지민기자

내한 폴포츠 '수수한 입국'

남다른 한국 사랑으로 유명한 오페라 가수 폴 포츠(사진)가 다시 한번 한국을 찾았다.

폴 포츠는 2일 오전 자전적 영화 '원챈스' 홍보를 위해 내한했다. 그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팬들의 열렬한 환호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폴 포츠는 입국장을 빠져나간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겨 한국 팬들에게 미리 인사했다.

오는 13일 개봉하는 영화 '원챈스'는 영국의 평범한 휴대전화 판매원에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오페라 가수가 되기까지의 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한 폴 포츠의 실제 이야기를 담았다.

연출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데이빗 프랭클 감독이 맡았으며 폴 포츠 역할은 제임스 코든이 소화했다. 폴 포츠는 오는 4일 CGV왕십리에서 열리는 언론시사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권지난 기자

'겨울왕국' 애니 첫 1000만 신화

외화로는 '아바타'이어 두번째… 주제곡 '렛 잇 고' 열풍에 영화 장기흥행

디즈니가 제작한 뮤지컬 애니메이션 영화 '겨울왕국'(사진)이 개봉 46일 만인 2일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애니메이션으로는 최초며 외화로는 '아바타' 이후 두 번째, 한국 영화를 포함하면 11번째 1000만 관객 돌파다. 또 뮤지컬 영화, 전체관람가 영화 중에서도 처음으로 1000만 관객을 넘는 등 숱한 기록을 쏟아냈다.

국내 총매출 수익은 7200만 달러(약 763억6000만원)다. 전 세계에서 9억9000만 달러(약 1조566억2500만원)의 흥행 수익을 올렸는데, 북미를 제외하고 한국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했다.

주제곡 '렛 잇 고'역시 영화 OST 및 만송으로는 처음으로 각종 음원 사이트 1위를 석권하며 가요계에 돌풍을 일으켰다.

효린, 에일리 등 연예인들이 부른 '렛 잇 고' 커버 버전, 김연아 선수의 경기 영상에 노래를 입힌 '김연아 렛잇고' 등 각종 패러디물이 쏟아지면서 '렛 잇 고' 열풍으로 이어졌다. 이 같은 '렛잇고' 열풍은 다시 관람으로 이어져 영화의 장기 흥행에 큰 힘을 실었다.

'겨울왕국'의 돌풍은 이후 서적과 문구, 여행 등 산업 전반으로도 번졌다. 색칠 스티커북, 영어책 등 관련 책 상품이 출간된 후 잇따라 베스트셀러에 진입했고, 주인공 엘사 인형 등 각종 캐릭터 상품이 불티나게 팔렸다. 국내 여행사들은 영화의 배경이 되는 노르웨이를 포함한 북유럽 여행 상품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한국에서의 흥행에 힘입어 배급사인 소니 픽처스 릴리징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 코리아는 싱어롱(Sing-Along) 자막 버전을 6일 개봉하기로 했다. 싱어롱은 관객이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도록 가사 자막과 반주가 더해진 상영 방식으로 이 버전은 비 영어권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개봉된다.

/박진영 기자 ssk0427@metroseoul.co.kr

여진구 '권법' 주연 확정

배우 여진구(사진)가 영화 '권법'의 주인공으로 확정됐다.

200억원 이상의 제작비가 투입될 '권법'은 역대 최대 규모의 한·중 합작 프로젝트로 CJ E&M과 중국 국영 배급사인 차이나필름그룹, 중국 메이저 제작투자사인 페가수스&타이허 엔터테인먼트가 공동 투자 및 제작·배급을 맡는다.

'권법'은 에너지가 고갈돼가는 미래, 범죄자들이 모여 사는 별리라는 마을에 들어가게 된 고교생 권법(여진구)이 그곳에 감춰진 무한 에너지의 비밀을 거대 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싸우는 이야기를 담은 SF 판타지 액션 영화다.

제작진은 대형 프로젝트에 여진구를 캐스팅한 것과 관련해 "여러 작품에서 선보인 감정 연기와 액션 연기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봤다"며 "두 가지를 동시에 소화할 가장 적절한 캐스팅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웰컴 투 동막골'의 박광현 감독이 각본과 연출을 맡는다. 올해 상반기 캐스팅을 마치고 하반기 촬영에 들어간다. 2016년 개봉 예정이다. /유순호 기자 suno@

'폼페이' 10일만에 100만

2월 개봉작 중 최고 기록

재난 블록버스터 '폼페이: 최후의 날'(사진)이 지난 1일 누적 관객 102만9458명을 기록했다.

지난달 20일 개봉한 '폼페이: 최후의 날'은 개봉 첫 주에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시작했고 여세를 몰아 가뿐히 100만 관객을 달성했다. 2월 개봉한 영화 중 최고 기록이다.

'폼페이: 최후의 날'은 제목 그대로 기원전 79년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연안의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 18시간 만에 사라져버린 도시 폼페이의 이야기를 그렸다. 폼페이에서 실제 발굴된 '인간 화석'을 토대로 두 남녀의 애절한 러브 스토리부터 우정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검투사의 이야기, 사랑하는 아들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다 생을 마감하는 아버지까지 화려한 유흥 도시에서 살다 최후의 날을 맞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담았다.

또 영화 '타이타닉'에 참여했던 특수효과팀이 철저한 고증과 역사적 자문을 거쳐 의상, 소품, 거리 건축물 등 당시 모든 상황을 실제처럼 재현해 스토리는 물론 볼거리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김세은 기자 lanakim@

리암 니슨 '논스톱' 흥행 톱

3·1절 31만 관객 동원

리암 니슨 주연의 영화 '논스톱'(사진)이 3·1절 하루 동안 31만 명을 동원하며 신기록을 달성했다.

지난달 27일 개봉한 '논스톱'은 2일 현재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기준 누적 관객 수 58만2344명을 기록했다. 3·1절 하루 관객 동원 수는 31만4911명으로 지난해 신세계'가 기록했던 30만7805명, 2012년 '러브픽션'의 27만1196명을 넘어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논스톱'의 현재 성적은 리암 니슨의 대표작 '테이큰'이 9일간 기록한 관객 수 58만 명을 개봉 3일 만에 따라잡은 것이다. 앞서 '테이큰' 시리즈로 각종 명대사를 남기며 정통 액션을 선보였던 리암 니슨의 신작 '논스톱'이 '테이큰'을 제치고 리암 니슨의 새로운 대표작으로 자리매김할지 기대가 모이고 있다.

'논스톱'은 4만 피트 상공 위 비행기에서 사상 최악의 테러 위기가 찾아 오자 미 항공수사관 리암 니슨이 모든 탑승객을 용의 선상에 올려두고 테러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액션 블록버스터다.

/김지민 기자

'신이 보낸 사람'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서 상영

북한의 인권 실태를 다룬 영화 '신이 보낸 사람'이 19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상영된다.

제작사 대풍코리아는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 상영을 계기로 '신이 보낸 사람'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상영은 유엔에 등록된 최초의 북한 인권단체 사단법인 성통만사(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성사됐다.

제작사에 따르면 상영회에는 유엔의 각국 대표 관계자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협의기구 지위를 받은 한국의 유일한 북한 인권 비정부기구(NGO)의 각국 담당자, 유엔 상주 각국 대표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신이 보낸 사람'은 열악한 상영 환경에도 누적 관객 수 30만 명을 넘기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장성호 기자 yon@

中 철도역서 테러 170여명 사상 참극

중국 윈난 쿤밍철도역에서 무차별 테러가 발생, 17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테러가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정협 3일, 전인대 5일) 개막을 앞두고 신장 독립 세력이 기도한 것으로 추정돼 자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0분께 10여 명의 괴한들이 쿤밍철도역 광장에서 시민을 무차별 공격해 29명이 숨지고 140여 명이 다쳤다.

현지 언론들은 "신장 분열 세력이 계획한 테러 사건"이라며 "사건 현장에서 이와 관련된 증거물이 다수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목격자들은 괴한이 모두 검은색 복면을 썼으며 흉기를 들고 철도역 매표 창구로 들어와 시민들을 해쳤다고 전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인 4명을 사살하고 1명을 체포했다. 부상한 시민들은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신장웨이우얼자치구는 중국의 '화약고'로 불리는 곳으로 각종 유혈 사태가 끊이지 않는다. 앞서 지난 2009년 7월 5일 한족과 웨이우얼족이 충돌해 197명이 숨지고 1700여 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진 바 있다.

/조선미기자

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개입을 놓고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AP 연합뉴스

푸틴, 우크라이나에 軍 투입하나

서방 자제 요구 불구 러 의회 승인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개입에 나설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일(현지시간) 미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군사력 사용을 위해 상원 승인까지 받으면서 크림반도에서의 군사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26일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인접 지역에서 비상 군사훈련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15만 명의 병력과 전투기 90대, 탱크 870대와 군함 80척이 기동 훈련에 돌입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러시아가 6000명의 병력을 크림반도로 이동시켰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정부는 양국 간 협정에 따라 이 같은 병력 이동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과도 정부는 러시아의 군사 침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러시아의 군사 개입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푸틴 대통령이 군사 공격 카드를 꺼내들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많다. 러시아가 새로 들어선 친서방 성향의 우크라이나 중앙정부를 압박하는 선에서 발을 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제 문제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여러 면에서 군사 행동에 나서기 쉽지 않다고 말한다. 먼저 리비아, 시리아 사태 등에서 외세 개입을 강력하게 반대해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할 경우 스스로 원칙을 깨는 꼴이기 때문이다.

또 러시아의 군사 개입은 우크라이나 내 친러 성향인 동남부 지역과 친서방 성향인 중서부 지역 간 내전을 초래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내전은 대규모 난민 유입 문제 등과 함께 러시아 사회에 극심한 혼란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경제적인 충격도 고려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의 정정 불안으로 이미 러시아 경제는 타격을 받고 있다. 러시아 통화 루블화 가치가 급락하는가 하면 우크라이나에 투자한 러시아 은행과 기업들의 연쇄 피해도 우려된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오바마 90분 통화 철수 촉구

버락 오바마(사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크림반도 내 병력 철수를 촉구했다.

1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가진 전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전을 러시아가 위반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군사 개입 중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90분간의 '전화 회동'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의 개입이 우크라이나 주권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향후 국제 사회에서 러시아의 위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illegible]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러시아 정부가 개입, 우크라이나 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로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6월 러시아 소치에서 개최될 예정인 주요 8개국(G8) 경제정상회의 참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미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조선미기자

"태극전사 기량점검 무게"

홍명보호 6일 그리스전 앞두고 출국·"가상의 러시아 상대 기회"

브라질 월드컵 본선 무대를 향한 마지막 생존 경쟁이 시작된다.

홍명보(45)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그리스와의 평가전을 위해 2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6일 오전 2시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릴 평가전은 브라질행 티켓을 손에 쥘 23명의 최종 엔트리를 확정하는 무대라 할 수 있다.

홍 감독은 이날 6명의 K리그 소속 선수와 2명의 중국리그 소속 선수 등 8명과 함께 출국했고, 나머지 유럽·중동·일본에서 활약하는 15명의 선수를 현지로 직접 불러모으는 등 실질적인 주전 자원들을 전원 소집했다.

국내파는 주전 골키퍼 자리를 놓고 2파전을 벌이는 정성룡(수원 삼성 블루윙즈)과 김승규(울산 현대), 원톱 한 자리를 놓고 박주영(왓퍼드 FC)과 경쟁할 김신욱(울산)과 이근호(상주 상무), 중앙수비수 김주영(FC 서울), 포백 수비수 이용(울산) 등 6명이다. 김영권(광저우 에버그란데 FC)과 하대성(베이징 궈안)은 중국에서 임시 귀국해 국내파와 함께 출국했다.

오는 6일(한국시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리는 그리스와의 평가전을 앞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김신욱과 정성룡 등이 2일 오전 영종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벤치 워머' 논란에도 홍 감독의 번함없는 애정을 받아온 박주영이 먼저 아테네에 도착하며 홍정호·지동원(이상 FC 아우크스부르크), 박주호·구자철(이상 FSV 마인츠), 손흥민(바이엘 레버쿠젠), 이청용(볼턴 원더러스 FC), 남태희(레퀴야 SC) 등이 속속 훈련지로 집결한다. 기성용(선덜랜드 AFC)과 김보경(카디프시티 FC)은 3일 오전 경기를 치른 후 합류한다.

대표팀은 3일부터 이틀간 현지 적응과 전술 훈련을 치른 뒤 아테네 카라이스카키 스타디움에서 그리스 대표팀과 경기를 치른다.

홍 감독은 출국 전 취재진과 만나 "그리스 평가전은 브라질 월드컵에 나설 최종 엔트리를 정하기 위한 마지막 경기"라며 "월드컵 본선에 대비해 준비해온 것을 펼쳐 보이는 자리인 만큼 평가전 결과보다 선수들의 기량을 파악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리스는 월드컵 본선 1차전에서 상대할 러시아와 경기 스타일이 다르기는 하지만 체력 조건이 뛰어난 만큼 유럽 선수들을 미리 상대해보는 좋은 기회"라며 "선수들이 그동안 준비해온 것을 제대로 보여줘 높은 경기력을 선보이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문태종의 오버헤드킥? 2일 오후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창원 LG-서울 SK전에서 LG 문태종이 SK 수비들의 강한 저지를 받자 공을 향해 마치 축구에서 '오버헤드킥'을 하듯 몸을 뻗고 있다. /연합뉴스

리그 1위, 모비스냐 LG냐

(10연승) (11연승)

7일 맞대결이 우승 분수령

프로농구 1~2위 팀인 울산 모비스와 창원 LG가 거침 없는 연승행진을 벌이며 치열한 선두 경쟁을 이어갔다.

LG는 2일 경남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KB국민카드 프로농구 정규리그 서울 SK와의 홈 경기에서 87-80으로 이겼다. 11연승을 기록한 LG는 38승14패가 되면서 1위 모비스(39승13패)와의 승차를 1경기로 유지했다.

LG는 문태종이 20점, 발목 부상 투혼을 발휘한 데이본 제퍼슨이 17점, 12리바운드, 김종규도 16점을 기록하며 승리를 이끌었다.

모비스는 이날 원주 동부와의 홈 경기에서 79-63으로 완승을 거두며 10연승을 달렸다. 모비스는 문태영이 23점, 로드 벤슨이 16점·13리바운드로 활약하며 단독 1위를 지켰다.

LG와 모비스는 7일 울산에서 맞대결을 남기고 있어 어느 팀이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할지 점치기 어렵다.

부산 KT는 서울 삼성을 61-52로 물리쳤다. /유순호기자

프로농구 전적 2일

팀	1Q	2Q	3Q	4Q	합계
삼성	12	16	13	11	52
KT	10	18	16	17	61
LG	20	27	18	22	87
SK	13	23	19	25	80
모비스	23	16	24	16	79
동부	10	23	17	13	63
우리은행	23	11	29	21	84
신한은행	25	14	9	18	66

현대캐피탈 선두 삼성화재에 승점 1점차 추격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가 대한항공 점보스를 꺾고 선두 삼성화재 블루팡스를 바짝 추격했다.

현대캐피탈은 2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NH농협 2013~2014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원정경기에서 대한항공을 세트 스코어 3-1(25-20, 25-15, 18-25, 25-20)로 이겼다.

현대캐피탈 외국인 주포 리베르만 아가메즈(30점)·문성민(12점)도 힘을 보탰다. 팀의 고비 때마다 역할을 톡톡히 하며 승리로 이끌었다.

승점 3을 추가한 현대캐피탈(승점 58)은 선두 삼성화재(승점 59)와 격차를 승점 1로 줄였다. 이로써 2008~2009시즌 정규리그 우승 후 5년 만에 정상 탈환을 향한 희망을 이어갔다.

3위 대한항공(승점 41)은 2연패를 당해 4위 우리카드 한새(승점 39)로부터 거센 추격을 받게 됐다.

/최은혜기자 jak0427@

프로배구 전적 2일

대한항공	1	3	현대캐피탈
흥국생명	0	3	IBK기업은행

역시 박지성…동점골 어시스트

에인트호번 5연승 – '풀타임' 손흥민 수차례 날카로운 슛

박지성(33·PSV 에인트호번)이 5개월 만에 공격포인트를 기록했다.

박지성은 2일 네덜란드 데벤테르에서 열린 2013~2014시즌 네덜란드 프로축구 에레디비지에 26라운드 고 어헤드 이글스와의 경기에 선발 출전해 1-2로 뒤진 후반 22분 동점골을 어시스트했다. 페널티 지역 정면에서 수비수를 제치고 위르겐 로카디아에게 패스를 이어줘 로카디아가 골을 성공시켰다.

지난해 9월 AFC 아약스 암스테르담과의 경기 이후 귀중한 공격포인트를 추가하며 시즌 2골 3도움을 기록했다. 에인트호번은 박지성의 동점 어시스트에 힘입어 3-2로 역전승을 거뒀다. 박지성은 후반 31분 교체됐다.

바이엘 레버쿠젠의 손흥민(오른쪽)이 2일 FSV 마인츠와의 경기에서 상대 수비를 제치고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최근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에인트호번은 5연승을 기록하며 13승5무8패, 승점 44로 리그 5위를 유지했다.

독일 프로축구에서는 코리안더비가 펼쳐졌다. 손흥민의 레버쿠젠과 박주호·구자철이 소속된 FSV 마인츠가 붙은 분데스리가 23라운드 경기에서는 마인츠가 1-0 승리를 거뒀다.

손흥민은 풀타임으로 활약하며 여러 차례 위협적인 슛을 날렸지만 골로 연결시키지는 못했다. 박주호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90분을 소화했고, 선발 출전한 구자철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구자철은 후반 21분 상대 선수와 충돌 후 교체됐다.

대표팀 공격수 지동원과 수비수 홍정호(이상 FC 아우크스부르크)도 하노버96과의 경기에 선발로 나와 좋은 컨디션을 보였다. 이들도 공격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다. /유순호기자 suno@

여자축구 U-20 월드컵 잉글랜드·멕시코 등과 한조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이 2014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여자월드컵 조추첨 결과 나쁘지 않은 편성을 따냈다.

1일 캐나다 몬트리올의 르윈저 호텔에서 열린 대회 조추첨 결과 한국은 잉글랜드, 멕시코, 나이지리아와 C조로 편성됐다. 8월 캐나다에서 열릴 이 대회에서 8월 6일 잉글랜드와 1차전을 치르고 9일 나이지리아, 13일 멕시코와 차례로 격돌한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아시아축구연맹(AFC) 19세 이하 여자챔피언십 우승팀 자격으로 이번 대회에 출전한다.

정성천 여자 U-20 대표팀 감독은 "각 팀이 비슷한 실력을 갖추고 있어서 준비를 잘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3월 선수들의 플레이로 모두 깜짝 놀라게 하겠다. 4강 진출 이상을 목표로 잡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최은혜기자 jak0427@

우리 모두는 한때 유치원생이었다

임경선의 모놀로그

오늘은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다. 나의 딸도 신입생 중 한 명이다. 지난주 많은 축하와 더불어 마침내 학부형이 되는 기분이 어떠냐는 질문을 받았다. "닥치면 어떻게든 되겠지" 주의인 나는 비장함 하나 없이 그저 유치원 졸업이라는 감상에서 못 벗어나고 있었다.

당사자인 딸아이가 더 심경이 복잡했다. 밤마다 잠자리에 누워 실랑이하던 딸아이가 며칠 전엔 적막 속에서 이렇게 외쳐댔다. "금요일 지나고 다음주 월요일에 바로 초등학생이 되는 게 말이 돼? 어니 세상에 어게 일어 되느냐고. 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유치원에서 배운 것밖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엄마인 나는 빵 터졌다. 아무렴 누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삶의 다음 단계를 거지며 살아가야 하는 법. 게다가 유치원에서 배운 걸로 이미 충분하단다, 아가야.

한때 세상을 휩쓸었던 로버트 풀검의 베스트셀러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가 생각났다. 줄거리는 기억이 안 났지만 이젠 빼도 박도 못하는 어른이 되니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단 게 진실임이 판명됐다.

친구를 괴롭히지 않을 것. 물건을 소중히 함께 나누어 쓸 것. 가급적이면 양보할 것. 실수를 했다면 먼저 용기내서 말할 것. 힘들어하는 친구를 도와줄 것. 내가 잘못하면 사과할 것. 자신이 어지럽힌 건 스스로가 치울 것. 오후에는 낮잠을 잘 것. 독서 시간을 가질 것. 그림 그리기나 공작을 통해 마음껏 자기 표현을 할 것.

어른들의 인생에도 얼마나 고스란히 적용되는 배움들인가. 사회생활에선 타인에게 피해 안 주도록 노력하기. 내가 친 사고는 스스로 수습하기. 인간관계에선 공정할 것. 주변의 약자를 도울 것. 개인 생활에선 충분한 휴식과 독서와 창의적 활동을 할 것.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은 이렇게 전부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이었다. 그 주에 한 번 유치원 선생님들이 부모들에게 보내는 소식지에도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이 쓰여져 있었건만 나는 소풍 날짜나 준비물만 체크하고 읽지도 않고 버렸었다. 해답은 매번 이렇게 뒤늦게 찾아온다.

/칼럼니스트

날씨

3/3 月 일출 07:01 일몰 18:27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539.co.kr

서울 · 청주 · 대전 · 전주 · 광주 · 제주 · 강릉 · 울릉도 · 대구 · 포항 · 울산 · 부산

흡연은 기관지 섬모운동을 저하시켜 호흡기의 방어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감기 흡연도 마찬가지로 금연만이 폐렴환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533-8877
www.ttsa4126.com

본의 아니게 하우스푸어인데 뾰족 대안 없어 손해 감수를

월그대 여자 71년 1월 17일 음력 오전 8시

Q 10년 전에 절친의 소개로 기획부동산의 지방 토지와 서울의 집을 끌겨다니다 절리지 않게 된 주택이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하우스푸어가 된 거죠. 몇 년째 절리지 않아 대출이자에 전수리 비용이며 금전적 심적으로 힘듭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다 정리하고 싶은데 언제쯤 끝날까요?

A 사주에 재다신약(財多身弱)이 겹습니다. 특성은 자신이 신약하기 때문에 자기 자산을 투제하고 재어하지 못하여 남의 말에 따라가다가 손실을 보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부자로 잘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재성(財星)이 많으면 기운이 강한 신강(身强)한 사주가 되어야 좋으나 신약한 사주는 재(財)가 많아도 그것을 보기만 할 뿐 자신의 것으로 거머쥘 수 없게 되다 의식주를 위해 곳상 바쁘고 분주하지만 실속이 없어 궁핍함을 면치 못합니다. 질문의 요지인 답답함처럼 현재의 운세에서 달리 뾰족한 대안이 없습니다. 관재를 당하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과감한 손해를 본다 해도 손해를 받아들여야 하는 수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학사 편입·전문학원 갈까 고민 느긋하게 내년 대학 도전하길

Hue00번 여자 95년 1월 23일 오후 10시30분

Q 답답하고 답이 안 나와서 글을 올립니다. 2010년에 방통대에 들어가서 영문대 관광을 위해서 정말 열심 보고 2학년을 다니다 휴학을 했습니다. 결과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학사 편입으로 한 번 더 지원을 해볼까요? 아니면 제가 푸드스타일리스트 학원을 다녀서 그쪽으로 가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A 생일지(生日支) 태어난 날이 녹마동향(祿馬同鄕)으로 정관(正官: 직위)과 재성(財星: 재물)이 숨어 있어 복은 있습니다. 그러나 학문의 기운에 역마가 귀하여면 버불기를 타고 다니면서 외의를 획득하지만 귀하의 현재 운세는 별이 아프게 떨어대려도 실속이 없는 상태입니다. 결과를 얻기 전에 실증을 내기도 하고 지속성이 없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군요. 학사 편의 관점을 2015년에 생각하십시오. 100세 인생에서 1~2년 늦고 빠름은 전체 인생의 삶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성도 부족하지만 구추상해(九醜傷害)하여 이 쉬 간의 흔닥상이 예견되어 인에서가 기정과 학업이 옥자를 뜰고 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1			9			5
					3	2		
		8	6			9	4	
1	9					4	5	
			3		1			
	2	7					9	1
	1	4			7	5		
		3	5					
6			1			7	3	

			7		1			
					6	4	1	7
				2		8		
3			8	1	5	6	9	
9								1
	2	6	3	4	9			5
		2		5				
7	3	8	1					
			6		8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보누스
현사 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커움)

신점[神占] 운세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중요한 정보는 보안에 신경 써라. 60년생 평소 갖고 싶었던 물건 얻는다. 72년생 복수는 복수를 부르니 삼가라. 84년생 말보단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좋다.

소: 49년생 참고 기다리면 기쁨은 커진다. 61년생 남의 말 쓴 눈데 경계하라. 73년생 사람은 많이 만나나 소득은 별로다. 85년생 잘이 꽂히는 이성과 마주치니 가슴이 콩콩~

호랑이: 50년생 돈 앞에 흔들리지 마라. 62년생 세상은 살지 않은 약자가 발전시킨다. 74년생 구설수 있으니 말 아껴라. 86년생 큰 뜻의 잔챙이보단 연못의 대어가 좋다.

토끼: 51년생 인사 문제 방심하면 허 찔린다. 63년생 문서 일은 당분간 보류할 것. 75년생 문을 열면 복이 굴러들어온다. 87년생 애인과 돈 문제로 다투지 않도록 신경 써라.

용: 52년생 벽한 좋은 어렛사람과 공조할 것. 64년생 뒤집어 보면 새 모습이 보인다. 76년생 염소가 다가고 소가 들어오는 형국~ 88년생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뤄진다.

뱀: 53년생 생각도 못 한 선물 받는다. 65년생 기회는 예고 없이 오니 준비할 것. 77년생 서두르면 뜻대로 되지 않는다. 89년생 일이 잘 풀리더라도 자만하지 마라.

말: 42년생 배우자와 빌길을 엇갈려 며~ 54년생 거개저의 적당한 밀당은 이롭다. 66년생 떠난 버스는 빨리 잊어라. 78년생 심사가 약속을 어겨서 속이 상한다.

양: 43년생 소유권 문제로 얼굴 붉힌다. 55년생 오늘의 행운은 하늘이 준 것이니 받아라. 67년생 불리한 조건이 약이 된다. 79년생 최선을 다하면 원하는 것 얻으리라.

원숭이: 44년생 배우자 넉넉한 아량에 감동~ 56년생 남의 일에 끼어들면 손해만 본다. 68년생 남의 눈치 때문에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마라. 80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다.

닭: 45년생 오라는 곳이 많아 바쁘다. 57년생 의심 가는 일엔 발을 빼라. 69년생 작은 것에 연연하면 큰 것을 잃는다. 81년생 남쪽으로 가는 계획은 가능한 한 피하라.

개: 46년생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멀리하라. 58년생 문서 일은 지갑이 생긴다. 70년생 쇠붙이 옮으려다 소를 잃는 형국이다. 82년생 운길이 별로니 자중하는 게 좋다.

돼지: 47년생 집안에 웃음소리가 넘친다. 59년생 거짓말 안 하게 생긴 사람 경계하라. 71년생 배운 것은 거뒤들일 때다. 83년생 첫술에 배부르라. 작은 것에 만족할 것.